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저소득여성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김 부 강

2013년 2월

저소득여성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혜연

김부강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2월

김부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년 2월



목 차

국문초록	iv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II. 이론적 배경	5
1. 여성과 빈곤	5
1) 빈곤의 정의	5
2) 빈곤의 여성화	10
3) 빈곤원인론	14
2. 여성의 취업과 자활의지	19
1) 여성과 취업	19
2) 여성의 자활의지	23
3) 자활의지 관련이론	27
3. 저소득여성의 자활의지 관련 선행연구	31
III. 연구방법 및 절차	38
1. 연구의 목적 및 연구내용	38
2. 연구모형	39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39
4. 측정도구	40
5. 분석방법	42
IV. 연구결과 및 해석	43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3
2. 조사대상자의 자활의지에 대한 인식	47
3. 조사대상자의 특징에 따른 자활의지에 대한 차이	49
4. 자활의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3
V. 결론 및 제언	56
참고문헌	60
Abstract	67
부 록	70

표 목 차

<표 1> 빈곤의 대안적 정의	7
<표 2> 빈곤의 정의와 구분	9
<표 3> 근로시간 기준과 고용형태 기준에 따른 여성단시간 근로	21
<표 4> 근로형태별 여성고용비중(2005년, 2010년)	22
<표 5> 저소득 여성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에 대한 선행연구결과	37
<표 6> 측정도구 문항의 신뢰도	40
<표 7>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5
<표 8> 조사대상자의 자활의지에 대한 인식	47
<표 9> 조사대상자의 특징에 따른 자활의지에 대한 차이	51
<표 10> 저소득여성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5

그 립 목 차

<그림 1> 전국/제주 경제활동참가율(2005~2011.9)	2
<그림 2> 빈곤의 여성화	12
<그림 3> 연구모형	39

<국문초록>

저소득여성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김 부 강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혜 연

본 연구는 저소득여성의 자활의지에 관한 연구로서 저소득여성의 특징에 따른 자활의지에 대한 차이를 조사해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저소득여성의 자활의지를 효과적으로 고취 시켜 자활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여성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자료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은 304명 이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저소득여성의 자활의지이며 독립변수는 저소득여성의 개인적 특성, 개인의 심리적 자원 및 사회적지지 자원 변수, 경제 및 취업관련변수 들이었다.

저소득여성의 주요변인에 따른 자활의지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 및 ANONA analysis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하였다. 또한 주요변인이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 여성들의 자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 여성의 자활에 대한 인식은 전체적으로 3.08점으로 “보통이다”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나는 언젠가 스스로 자활할 것이다.’가 3.37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자활에 필요한 관련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가 2.7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저소득 여성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활의지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개인적 특성에서는 교육수준과 건강상태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개인의 심리적 자원 변수중에는 자아존중감만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사회적지지 자원변수에서는 3가지 하위영역인 도구적지지, 평가적지지, 정서적지지 모두 자활의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특성 및 취업관련변수에서는 월 평균 생활비, 향후 5년 이내 가계 경제전망, 자격증 소지여부, 총 취업경력에 따

*본 논문은 2013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라 자활의지 수준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저소득 여성들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저소득여성의 연령, 혼인상태,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평가적지지, 주택소유 유형, 월 평균 생활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인상태와 평가적지지가 저소득여성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결과를 통해 우선 제주지역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 여성들의 자활의지가 보통수준이었음이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심리적 자원 및 사회적지지 자원 변수보다 개인의 일반적 특징과 함께 경제 및 취업관련 변수들이 자활수준과 밀접하고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저소득여성의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징 및 취업, 경제적 변수들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함을 보여준다. 자신의 상황에 맞고 구체적인 계획과 현실적인 목표 달성을 통해 자활의지를 점차 높여 자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여성은 다양하고 복잡한 생활실태에 있으므로 개인의 인적자원개발을 돕는 것과 같은 심리적, 정서적, 제도적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사회적 차원에서의 정책과 제도가 요구된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사회가 형성된 이래 희소한 자원으로 인한 빈곤은 가장 오래된 사회문제 이면서 현대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사회문제로서, 사회적, 국가적 해결 과제이다 (송승숙, 2010).

국가의 빈곤을 나타내는 지표인 빈곤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절대빈곤율²⁾이 일정수준 유지되는 것에 비해 상대 빈곤율은 더욱 큰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2010.10)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우리나라 상대빈곤율³⁾(가처분소득 기준)은 지난 2007년 14.8%, 2008년 15.0%, 2009년 15.2%로 높아지고 있으며 절대빈곤율도 2007년 10.2%, 2008년 10.4%, 2009년 11.1%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빈곤에 취약한 계층은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만성 질환자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여성들은 무직이거나, 취업을 하고 있다고 해도, 성차별적 직업 및 임금 구조로 인해 소득 불평등 및 빈곤층 심화의 계층으로 지적된다.

성명재(2009)가 발표한 ‘소득분배 동향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여성 가구주의 상대빈곤율은 17.0%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시기의 30.9%를 제외하면 사상 최고치로 남성가구주 상대빈곤율(6.6%)의 세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성명재(2009)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임금수준이 낮은 반면, 평균 수명이 높아, 빈곤율이 높은 노인 가구 중 고령여성 단독가구 비율이 높은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여성의 빈곤은 여러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사회보장체계에서의 불평등한 지위, 가부장적인 가족구조 및 보살핌, 노동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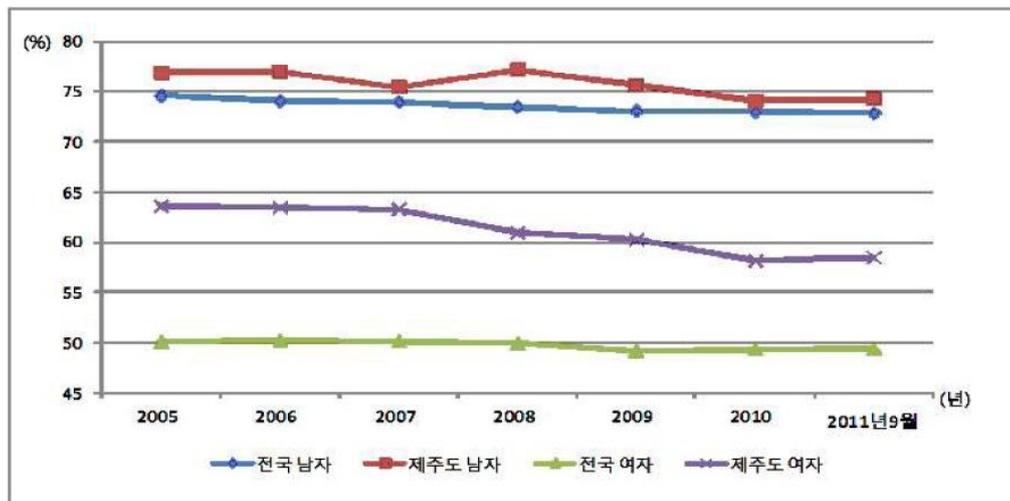
2) 한 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가구의 비율.

3) 소득이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수준별로 나란히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한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의 50%를 밑도는 가구의 비율

한 가치평가 절하 등 다양한 여성차별적인 사회구조들과 연동되어 여성의 빈곤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현상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서 국제적으로도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김안나, 2006).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독립심과 자립정신 등의 특징이 인식되어 왔다.

<그림 1> 전국/제주 경제활동참가율(2005~2011.9)



출처 : 정영태 외(2011).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수립 p 60. 제주발전연구원.

그러나 여성가구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호남지방통계청,2009), 공공부조의 수혜를 받고 있는 수급권 가구 중 모자가구 비율이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 다음으로 높을 뿐 아니라, 이는 부자가구의 비율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치여서 제주지역 역시 ‘여성의 빈곤화’ 현상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여성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복지 정책은 생계비 지급과 일자리 정책 위주의 탈빈곤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저소득 여성들이 생계를 해결하고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정부는 2006년부터 성인지예산⁴⁾을 편성하였고, 적극적 고용조치 등 여성에 대한 긍정적 차별(Affirmative Action)을 통해 성주류화, 성평등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

했다. 이처럼 여성의 빈곤문제가 사회 정책의 주요 이슈가 되고, 많은 제도적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여성의 빈곤율은 여전히 전체 빈곤율의 두 배를 상회하고, 절반에 가까운 여성 한부모 가구가 보편적 사회보험 프로그램에서조차 소외되어 있는 현실⁵⁾은 빈곤의 여성화에 대해 사회정책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여유진 외, 2010).

제주특별자치도는 '08년 국정시책 지자체 합동평가를 통해, '저소득층 자활 성공률⁶⁾' 부문, 전국 1위의 성적을 거뒀고(뉴스제주, 2009. 4. 14)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09년도 지자체 자활사업분야 평가에서도 제주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제주의소리, 2010. 9. 6)되는 등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탈빈곤의 목표를 위해 취업과 창업 등을 통한 자립, 자활을 강조한 데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저소득 여성의 취업이 곧 여성의 빈곤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어서 정책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빈곤이란 한 사람이 사회 성원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조건이며, 여성의 경우 어려움이 가중된다. 이러한 빈곤은 개인의 삶 뿐 아니라, 가족 및 사회 전반과 관련되어 있으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 자신이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이다.

자활의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은 같은 저소

4)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하여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5) 최근 전국 한부모 290명의 생활실태를 추적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조사대상의 78%가 월평균 수입이 150만원 이하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들 가구 중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가구가 22%, 건강보험에 가입하였지만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가구가 26%,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이 각각 52%와 49%로 절반에 이르렀다(조선일보, 2010. 5. 24)

6) 자활성공률 산정방식 : 자활사업참여수급자 중 탈수급자의 비율 즉, 탈수급자(자활특례포함)/자활사업참여수급자로 측정한다. 2007년 ()의 성공률은 자활사업참여수급자 중 탈수급자 및 취업·창업자의 비율 즉, 【탈수급자(자활특례포함)+취업·창업자】/(업그레이트형자활근로+자활공동체+창업+취업알선+노동부자활사업)참여수급자】로 계산한 성공률임.

특층이라고 하더라도 고용지위와 고용조건이 남성과 달라 저소득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나아가 노동권을 확보하기까지는 쉽지 않으므로 자활의지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배재숙, 2002). 그러나 여성의 자활의지를 높이는 것은 쉽지 않아서, 개인의 자존감이나 성취동기와 같은 심리적 요인을 포함하여 가족을 비롯한 여성 주변의 친구, 동료와 같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옥정순, 2004; 이재은, 2009, Taylor, 2001; Danziger et al, 1999).

그러나 지금까지 여성의 빈곤 문제는 주로 빈곤 여성의 취업여부 및 취업 형태 등 취업에 초점을 두거나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접근하여(강남식 외, 2002; 송경아, 2007; 이상수, 2003) 자활사업 여성 참여자 자체와 자활의지에 관심을 둔 연구가 많지 않으며 특히 여성의 빈곤화가 이미 시작된 제주지역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자활참여 저소득 여성을 대상으로 자활의지를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의 개인적, 심리적 변수 및 사회적 지지변수들을 분석함으로써, 여성의 자활의지를 높이고, 빈곤여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여성과 빈곤

1) 빈곤의 정의

빈곤이란 무엇인가? 빈곤개념은 빈곤에 대한 특정 관점과 시각을 둘러싼 논쟁적이며 역사적인 개념이다. 빈곤이 규정되는 방식은 각 사회마다 다양하며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해 왔다. 빈곤개념의 변천은 빈곤에 대한 절대적 접근에서 상대적 접근으로의 변화로 이해될 수 있다.⁷⁾

또한 빈곤이라는 용어는 일상적으로 매우 흔히 사용되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정의내리기 매우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다. 특히, 빈곤은 넓은 의미에서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의 기회, 수단 또는 자원의 결핍상태”(이정우, 1997)라고 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구체화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하루 세 끼를 다 먹지 못하는 사람을 빈곤한 것으로 볼 것인가, 자동차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빈곤한 사람인가, 하루 두 끼밖에 먹지 못하지만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은 빈곤한 사람인가, 집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자신의 생활이 가

7) 전통적인 빈곤개념은 Booth와 Rowntree가 사용한 ‘빈곤선’(povertyline)개념을 중심으로 측정되는 것으로서 빈곤이란 개인 혹은 가구단위에서 기본적인 물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소득의 부족을 의미한다. 이러한 절대적 접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도전을 받았다. 지나치게 물질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절대적 접근은 기술발달과 함께 새롭게 창출되는 욕구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빈곤개념의 상대적 접근을 시도한 대표적인 논자는 Townsend로서 그는 빈곤을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정의하고 ‘상대적 박탈’이라는 측면에서 빈곤을 정의하여 빈곤에 대한 정의를 확대시키는데 기여 하였다. Townsend는 전후 서구와 같은 풍요한 사회에서 소득의 수준과 크기 혹은 배분과 같은 물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빈곤개념으로는 빈곤을 포착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물질적인 빈곤과 함께 개인 행위와 삶의 기회를 제약하는 가족, 여가, 교육과 같은 사회적인 측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Townsend와 함께 Sen은 빈곤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발달시킨 대표적인 학자로서, 삶을 구성하는 가치 있는 기능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에 집중하여 빈곤현상을 불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정미숙, 2007).

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빈곤하다고 볼 수 있는가 등등이다.

이와 관련해서, 빈곤 개념은 연구자들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정의를 내려 왔다. 이를 대략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과 같이, 빈곤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으로 첫째, 자원이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적절치 않은 상태이며, 둘째 빈곤에 대한 공동체의 인식을 체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함을 알 수 있다(Saunders, 1998). 즉, 핵심적으로 의식주와 같은 필수품에서의 결핍상태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필수품의 범위는 연구자에 따라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그 사회의 생활수준과 관습, 가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Sen. A.(1987)은 물질적인 자원의 결핍을 넘어서 그러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의 결핍까지를 빈곤으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빈곤의 차원을 좀 더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미곤 외, 2010).

<표 1> 빈곤의 대안적 정의

연구자	연도	정의
Adam Smith	1776	내가 이해하기에 필수품은 생활의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재화 뿐만 아니라, 관습상 최하위층의 사람일지라도 그것 없이는 신망있는 사람으로서의 체면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재화.
Seebohm Rowntree	1899	어떤 가족의 총소득이 단순히 물리적 효율성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품을 획득하기에 충분치 않은 상태.
William Beveridge	1942	소득 중단 시기 동안 노동연령의 사람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소득을 고려할 때, 식품, 의류, 연료, 조명과 가구집기, 집세만을 고려하는 것.
Ronad Henderson	1975	빈곤이 최소한의 받아들일 수 있는 생활수준의 준거로 정의되는 한에 있어, 상대적 개념. 경제의 생산성과 공동체의 태도를 반영하는 가치판단이 요구됨.
Peter Townsend	1979	인구에서 개인, 가족, 그리고 집단은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고, 활동에 참여하며, 관습적인 혹은 최소한으로 널리 장려되거나 인정되는 생활조건과 설비를 갖추기 위한 자원이 결여될 때 빈곤상태에 있다고 함.
Joanna Mack and Stewart Lansley	1985	빈곤은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필수품의 강제된 결핍.
Amartya Sen	1992	빈곤은 최소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특정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기본적 능력의 결여(failure).
World Bank	1998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생활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
김대일	2004	지출의 평균적인 규모를 통해 실제 소비능력을 판단하는 즉, 소득이 아닌 지출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

출처 : 김미곤 외(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재구성.

위와 같이 빈곤과 관련한 여러 연구들을 살펴볼 때 빈곤의 정의에는 세 가지 잠재적 범주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객관적으로 정의된 절대적 최소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 상대적으로 그 사회의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 스스로가 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이러한 잠재적 범주에 기초해서 빈곤의 개념은 주로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으로 구분되어 개념화 되어 왔다.

빈곤을 의식주에 있어 최소한도로 수궁할 만한 수준을 마련할 수 있는 소득을 갖지 못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나면(Schiller, 1998), 다음의 문제는 그러한 대상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선의 설정이다. 빈곤의 기준선 설정에 관한 접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절대적 접근이 객관적으로 도출된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빈곤선으로 정의하는 반면 상대적 접근은 다른 사회구성원에 비해 상당한 정도로 낮은 소득을 가진 가구를 빈곤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한 사회의 소득분배가 완전평등을 이루지 않는 한 빈곤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어 특히 국제비교연구에서는 대체로 후자를 채택하고 있다(김환준, 2002). 후자의 방법 중 선호되는 방법으로는 OECD에서 제시한 중위소득의 40, 50, 60% 빈곤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40, 50%빈곤선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Burniaux et al., 1998).

이론적 차원에서는 빈곤개념이 절대적인 접근에서 상대적인 접근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빈곤을 측정하는 방식에서는 여전히 가구단위 소득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어 소득빈곤(income poverty)이라는 전통적인 빈곤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경제주의적 관점은 결과로서의 빈곤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통계자료 확보의 용이성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누가 빈곤한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은 빈곤선(poverty line)이하의 가구를 빈곤층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빈곤선(poverty line)은 빈곤한 자와 빈곤하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빈곤을 삶의 질의 문제라기보다는 생존의 문제, 즉 소득결핍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까지 나온 빈곤연구가 소득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정미숙, 2007).

이렇듯 가장 일반적인 빈곤의 척도는 ‘절대적 빈곤’ 개념이며 인간으로서 누

려야할 최소한의 생활수준조차 충족시킬 수 없는 즉, 기초적인 생계조차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절대적 빈곤층이다. 절대적 빈곤층은 생존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회에서 복지사업의 일차적 대상이 된다(최은주, 2006 재인용).

<표 2> 는 지금까지 언급된 개념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빈곤의 정의와 구분

구분	정의	내용
빈곤선의 설정에 관한 구분	상대적빈곤	다른 사회구성원에 비해 상당한 정도로 소득이 낮은 상태
	절대적빈곤	객관적으로 도출된 최소한의 생활수준에 미달하는 상태
	주관적빈곤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상태
빈곤의 특성에 의한 구분	장기빈곤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으로 빈곤선 이하, 계속빈곤
	반복빈곤	빈곤상태를 되풀이 경험, 진입/탈출을 반복
	항상빈곤	장기간에 걸친 평균소득이 빈곤선 이하

출처 : 이정아(2009). 여성가구주 가구의 항상빈곤화: 추세와 요인 p55 여성연구 77호를 참고하여 재구성.

2) 빈곤의 여성화

빈곤은 여성에게 있어서 남성에게보다 위험한 현상인가? 선진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여성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는 과거에 비해서 크게 향상되었으며 경제적 지위 또한 경제활동참가율의 꾸준한 증가와 남녀 임금격차의 감소 등의 지표 변화에 의하면 나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한계집단(marginal groups)의 구성과 규모의 변화, 생애기간 중 기회의 감소, 사회적·정치적 고립의 증가 등이 반영된, 과거와는 다른 불평등의 새로운 양상인 ‘신빈곤(new poverty)’의 한 지형으로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가 거론되어 온 것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 변화가 몇 가지 지표만으로 판단할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이정아, 2009).

Pearce(1978)는 빈곤집단 내의 여성비율이 증가하여 절대다수가 되는 ‘빈곤의 여성화’ 문제를 처음 제기해 빈곤을 처음으로 여성의 문제로 조명하였으며 사회 정책적으로 쟁점화 하였다(이혜경·최은영, 1997). Pearce(1978)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교육수준도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여성의 경제적 상태가 몇 십 년 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온 이유가 무엇보다도 수명이 늘어나고 이혼율이 증가한 결과 여성가구주 가구가 많아진 데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여성가구주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자녀양육의 부담을 대부분 혹은 모두 짊어지게 되고, 또한 여성으로서 노동시장에서 차별받는 동시에 ‘근로자성’을 토대로 하는 복지시스템 및 공적부조로부터 소외된다. 과거에는 민족, 이주, 인종에 의해 열위에 처한 그룹들이 차지했던 2차 노동시장을 여성들이 차지하게 되었는데, 여성들의 경우 노조를 조직하거나 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사용자들이 여성의 기본적인 역할을 가사나 양육으로 인식함에 따라 ‘영구적 임시 노동자’로 남게 된다는 점이 과거와는 다르다. 그 결과 자기계발이나 기술 향상 기회를 갖지 못하여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에 빠지게 된다(이정아, 2009).

빈곤층의 가족생활도 크게 불안정해 초혼 지속비율은 32.6%, 결혼 뒤 이혼이나 별거 경험자가 27.7%, 사별경험자가 31.2%로 높게 나타났다(2005년 기준).

또 성장기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중단, 가출, 부모사망, 이혼 등을 경험한 비율이 다른 계층 보다 2배 이상 높아 이후 교육이나 결혼생활, 경제활동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세대 간 빈곤계승 경향이 확인됐다. 이런 빈곤상황은 열심히 일은하지만 좀처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근로빈곤층이 두터워지고 있으며,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여성화, 고령화, 저학력화, 탈기술화라는 인구학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절대적 빈곤이든, 상대적 빈곤이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속에 이미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매우 뿌리 깊고 심각하게 확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성정현·송다영, 2005).

이러한 빈곤의 배경을 바탕으로 여성은 신빈곤 집단과 전통적 빈곤집단의 2가지 측면에서 빈곤으로 진입함을 <그림 2>과 같이 설명해 볼 수 있다(정영태, 2006 재인용).

한편 Peterson(1987)은 여성의 빈곤화 요인을 가족구조의 변화, 노동시장, 복지 프로그램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대다수 여성에게 있어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보다는 혼인상태가 경제적 삶의 질을 더 잘 드러내는 지표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지표가 되는 혼인 상태란 단순히 배우자가 현재 있는가의 여부이므로 미혼, 이혼, 별거, 사별 등의 구체적 요인이 아닌 혼/비혼의 문제라고 본다. 대부분의 여성에게 있어서 빈곤상태를 탈출한다는 것은 곧 여성 ‘가구주’ 빈곤으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한다는 설명도 있다(Kniesner et al.,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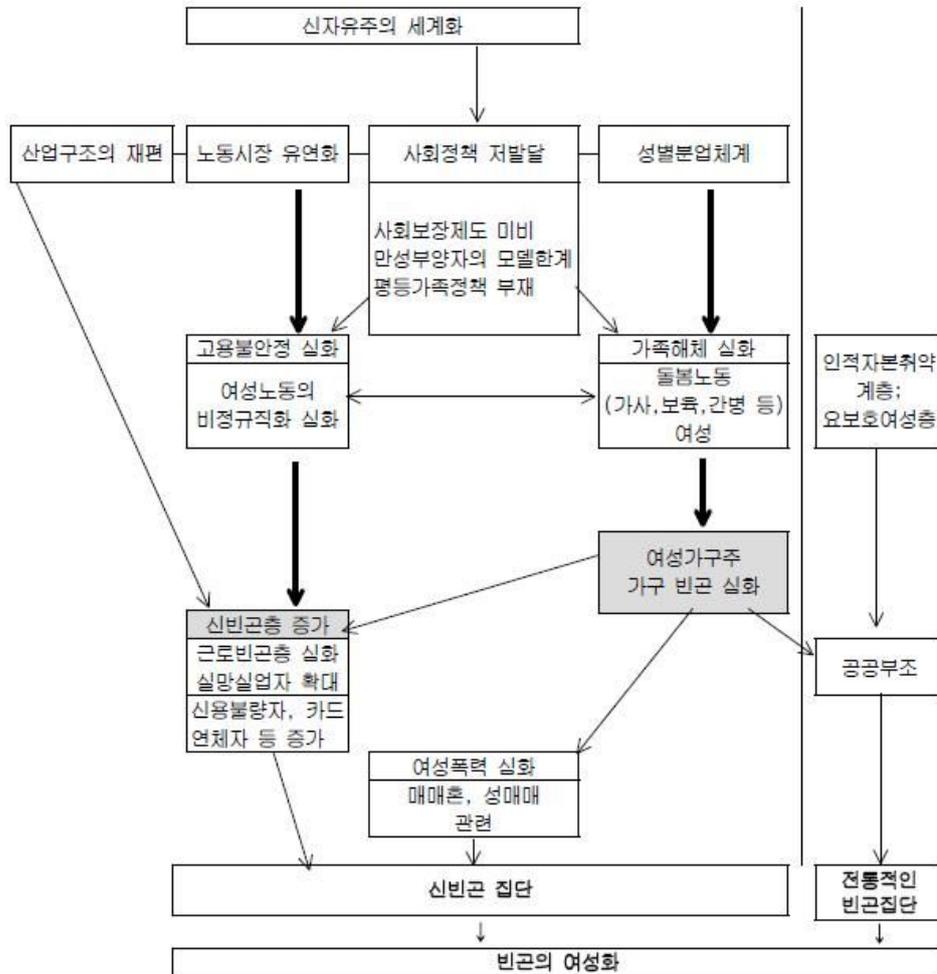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여러 연구에서도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빈곤에 더 많이 노출되는 원인으로 대부분 가족,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 체제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김영란, 1997; 박영란 외, 2002; 여지영, 2003; 석재은 외, 2003).

여성빈곤의 대부분은 자녀양육과 부양의 책임을 혼자서 져야 하는 여성들이지만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구조로 인한 저소득, 그리고 모자가족을 위한 자활 및 자립대책의 미비로 인해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빈곤이 장기화되고,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빈곤을 설명하는 가족이론은 가족 내 여성의 역할과 지위가 빈곤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설명하고 있다. 즉 여성은 가부장적 가족구조 내에서 재생산적인 역할(임신, 출산 및 육아, 부양 등 보호노동)을 담당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경제적인 자립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허근, 2006).

<그림 2> 빈곤의 여성화



출처 : 강남식, “여성의 빈곤현실과 탈빈곤을 위한 정책모색”, 한국여성단체연합제18차 정기총회(2004)자료집을 기초로 한 정영태(2006)연구 참고.

또한 Sarvasy와 Allen(1984)은 현대로 올수록 많은 여성들이 직면하게 되는 ‘이중역할(dual role)’, 즉 가족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임금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형태 등이 여성의 빈곤화에 주요한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가사, 자녀양육, 노인보호 등 가족 내 보호노동을 행해야 하는 여성들

에게 가족상황은 노동시장참여를 결정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침으로써 잠재적 빈곤을 낳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비록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을 선택한 여성이라 하더라도 무급 보호노동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유급노동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여성의 취업경력 단축과 소득능력의 마멸을 가져옴으로써 빈곤취약성을 높이게 된다. 또한 여러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살펴본 결과, 부양자녀수, 요보호자의 존재 등의 가족특성이 가사 노동의 부담을 증대시킴으로써 여성가구주의 노동시장참여 및 노동시장 내 경제적 지위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olden & Smock, 1991; Muldin, 1990; Smock, 1994).

여성 빈곤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인종과 계급 범주가 간과되었다는 비판이 페미니스트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Evans, 2005; Adair, 2005).

Adair(2005)는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의 억압적인 경험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인종, 계급, 젠더, 섹슈얼리티의 교차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현대 페미니스트 연구에서 계급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가난한 여성들의 삶은 단순히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가난한 여성의 계급 경험이 젠더와 인종, 섹슈얼리티 등 과 어떻게 교차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론과 경험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⁸⁾ 젠더는 그 자체로 독립적이기보다는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다른 분석범주들과 항상 교차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정미숙, 2007)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8) Adair는 페미니스트 연구에서 계급에 대한 고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밝히기 위해서 페미니스트 연구 커리큘럼, 주요 텍스트, 저널 등을 조사하였다. 국립단과 대학과 사립단과대학, 4년제 대학으로부터 확보한 100개 이상의 강의개요(syllabi) 분석을 통해 인종, 계급, 젠더, 섹슈얼리티에 대한 소개가 놀라울 정도로 많지만 젠더와 인종의 이슈에는 대략 각 강의개요의 36%를 차지하는 반면 젠더와 계급의 교차를 설명하는 부분은 오직 7%에 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여성학 과정에서 사용되는 주교재의 내용분석을 통해서 젠더에 대한 내용이 34%, 인종에 대한 내용이 40%, 섹슈얼리티에 대한 내용이 19%, 계급에 대한 내용이 7%임을 밝히면서 페미니스트의 주장과 달리 계급은 분석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주장한다(Adair, 2005).

3) 빈곤원인론

저소득층의 빈곤원인에 대한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이유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다는 개인적 요인과, 가난은 사회의 구조적인 힘에 의해서 생산되고 재생산된다는 제도적 요인이다.

짐발리스트(S. Zimbalist, 1977)는 빈곤에 관한 연구에서 빈곤의 원인을 주관적 요인과 객관적 요인으로 구별하여 제시하고 있다. 주관적 요인은 빈곤이 개인의 낮은 성취동기와 열망수준, 나태, 무절제 등의 순수한 개인적 결함과 유산이 없으며, 남편과의 사별, 불구, 질병 등의 가족적 결함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객관적 요인은 빈곤의 원인이 실업, 사업실패, 이동, 자녀교육의 소홀, 저교육, 복지의식과 정책의 부재, 미온적인 국가개입 등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갈브레드(Galbraith, 1962)는 빈곤의 원인을 두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는데 산업사회에 있어서 빈곤을 개별빈곤과 지역빈곤으로 구별하였다. 먼저, 개별빈곤은 빈곤이 빈곤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기인된다고 보며 정서적 결함, 생활무능력, 알코올 중독, 저 교육 등의 복합적인 문제의 결과로 본다. 지역빈곤은 빈곤이 산업사회에 있어서 특정지역의 대규모적 실업으로 인하여 발생된다고 본다.

위와 같은 견해를 토대로 관련 이론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가) 거시적 차원의 이론

(1) 기능주의

대표적인 이론으로 기능주의를 들 수 있는데 사회 제도나 사회 현상의 존재 이유를 그 제도나 현상이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초점을 두어 설명한다. 기능주의는 빈민층이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원치 않는 더럽고 어렵고 보수가 낮은 일들을 하는데 유용하고, 빈곤층이 다양한 사회적 순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빈곤퇴치를 위한 대책들에 무관심하다.

(2) 갈등주의

빈곤을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으로 갈등주의를 들 수 있는데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사회 비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빈곤이 결코 사회에 이로운 것으로 보지 않는데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빈곤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본다.

(3) Marxist 계급이론

생산수단의 유, 무에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는 자본가(가진 자)와 노동자(못가진 자)의 두 가지 계급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자본가의 생리는 적게 투자하고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하여 장기간 노동을 시킬 뿐 아니라 저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초과이윤을 증대시켜 확대 재생산의 효과를 얻으려한다. 따라서 노동자는 더욱더 가난하게 되고 빈곤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Marxist 계급이론은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서로 필요한 존재지만 항상 대립하고 투쟁한다. 즉 국가는 소수의 자본가가 다수의 노동자를 지배할 수 있는 자본가의 편에 있기 때문이며 국가는 자본가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는 항상 최소의 임금만을 받는다. 자본가는 임금상승을 기계도입으로 억제하고 실업자를 발생시키며 임금상승을 요구할 경우 실업자 가운데 적당한 일꾼을 찾는다.

자본가는 이윤을 늘리기 위해 노동시간을 늘리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노동자의 환경은 보수와 무관하게 악화된다. 이에 빈곤은 자본계급과 노동계급이 양극화됨에 따라 더욱 확대되고 자본주의가 존재 하는 한 빈곤은 영속 된다고 본다.

나) 미시적 차원의 이론

(1) 사회적 배제이론

1970년대 프랑스에서 시작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개념은 사회보
험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의 범주로 간주되었으나,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
치면서 사회적 분절화 과정과 이의 결과로 나타난 시민권 행사의 불평등, 부족,
불안정성 등을 의미하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Berghman,
1995; Jordan, 1997; Room, Lawsan, and Frank, 1989).

사회적 배제는 빈곤의 근본적 책임이 개인에게 있지 않으며 취업, 주거 및 기
타 적절한 생활조건 등과 같은 사회의 제반 기회와 주요 결정과정으로부터 차단
(배제)되는 불이익의 결과로 이해된다(Silver, 1994). 또한 경제적인 조건의 박
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서비스, 주택이나 건강보호 등과 같은 사회
전체적 차원의 시민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Paugam(1993)은 실업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박경숙, 2001 재
인용). 사회적 배제 개념과 빈곤개념을 구별 짓는 그 출발점은 빈곤은 배분의
문제에 그리고 사회적 배제는 관계의 문제에 초점을 둔다는 점이다(Room,
1995). 그러나 Bhalla and Lapeyre(1999)는 사회적 배제는 관계적 측면에서 빈
곤은 배분적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Room(1995)의 정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 사회적 배제 개념이 빈곤개념에서 볼 수 없었던 관계적 측면
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관계적 측면과 배분적 측면이 이분
법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두 요인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배제이론이 빈곤정책에서 추구하는 것은 종합적 빈곤대책의 수립의 필
요성과 적극적 탈빈곤 정책에 대한 강조 그리고 각 집단의 다층적 욕구에 따른
다양한 대책마련이다. IMF 때의 빈곤화는 경기침체로 인한 수동적 배제이고,
IMF극복과정에서 급격하게 비정규직화가 이루어 졌는데 이러한 정책은 적극적
배제라 할 수 있다. 빈곤여성가구주의 경우 사회적으로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
들과 소원한 관계를 이루면서 사회적으로 배제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그들
의 심리적인 문제로 까지 이어져 심리적으로 일반여성보다 낮은 자아존중감과
높은 우울과 불안증세를 보이기도 한다(류정순, 2004; 김은선, 2005).

(2) 인적자본이론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론은 1960년대 이래로 미국에서 활발히 연구 발전되었다. 노동도 하나의 상품이고 임금은 노동이 갖는 한계생산의 가치라는 전통적인 신고전주의 경제이론(Neo- Classical Economic Theory)에 반해 인적자본이론은 노동의 질적 차이를 강조하여 서로 다른 근로자가 서로 다른 생산성을 갖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김태성 외, 2002).

M. Harrington은 “The Other America”를 통하여 빈곤의 해법을 개인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서 찾았다. 그러나 인적자본이론은 첫째, 생산성과 취업, 생산성과 소득변화로 연결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둘째, 외부의 노동시장 여건을 무시한다는 평가를 받기에 이른다.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한 HeadStart는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수급자의 탈수급과 고용, 경제적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는 TANF⁹⁾ 도입이후 중심주제가 되어 왔는데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인적자본이 변수로 지적 되었다. 어떤 요인 보다 인적자본의 보유가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Brooks& Buckner, 1996).

인적자본이론은 우리나라의 빈곤계층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2002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자활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한 이태진(2003)의 근로빈곤계층의 빈곤요인분석에 따르면 근로 빈곤가구의 가구주가 비빈곤 가구의 가구주 보다 평균연령이 높고 만성질환 및 장애보유 또한 높았으며, 교육수준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취약한 인적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금불균형, 특히 저임금과 그에 따른 빈곤의 원인은 개인의 낮은 생산성, 공식적, 비공식적 능력개발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한다. 결국 인적자본이론은 탈빈곤의 해법을 개인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서 찾는다(노대명 외, 2002).

9)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y) 미국의 AFDC 프로그램((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 제정 이후 실시된 공적부조 프로그램) 개혁이후 대체 실시된 공적부조 프로그램.

그러나 인적자본이론은 경제적인 면 즉, 개인의 경제적 생산성의 낮음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서 경제적인 면 이외에 다른 측면에서 빈곤의 원인을 찾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물론 빈곤에서 경제적인 면이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 되는 경향이 있지만, 개인적인 속성에는 낮은 생산성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초점을 두어서 원인을 찾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김은선, 2005에서 재인용).

(3) 노동시장분절이론

노동시장분절이론은 노동시장이 제1차 노동시장 과 제2차 노동시장으로 분절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제1차 노동시장은 높은 임금과 안정된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취업자들로 구성된 노동시장이고 제2차 노동시장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취업자들로 구성된 노동시장이다. 이 두 시장의 분절 벽이 너무 두터워 제2차 노동시장에 있는 취업자들은 제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가 힘들고, 결국 제2차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머물기 때문에 빈곤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노동시장분절이론은 우리나라 저소득 모자가정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그들의 고용형태 실태조사 결과에 잘 나타나있다(박경숙, 2001). 백선희(2000)의 여성 실업실태 조사에 의하면, 저소득 실직자의 특성은 주로 단순노무직, 영세사업장 근로, 임시직 및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어 노동시장 수요가 축소할 때 타격이 심한, 전반적으로 불안한 고용형태에 머무르고 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그 정도에 있어 더욱 심각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4) 빈곤문화이론

빈곤문화라는 용어는 미국 문화 인류학자 루이스(O, Lewis)가 최초로 사용한 용어로 문화라는 말은 세대에서 세대로 계승되어 가는 하나의 생활양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는 성공과 출세, 성취지향 등에 있다. 이 이론에서는 빈곤한 자의 가치관이나 생활태도를 포함하는 생활양

식이 계승된다고 보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개 도시의 특정지역에 밀집해 살면서 사회의 주류문화와 동떨어진 독특한 하위문화를 만들어낸다. 그러한 특정 하위문화는 그 구성원들에게 패배의식, 무력감, 무관심, 열등감 등을 갖도록 조장하며 현실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불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 부터 이러한 하위문화에 장기간 노출된 사람들은 결국 이탈자나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빈곤문화론은 개인의 가치관과 생활 태도에 초점을 두고 빈곤의 발생을 설명하여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한다(송승숙,2010).

(5) 태도-동기이론

태도-동기이론은 빈곤의 원인을 비정상적인 태도, 일하려는 의욕의 미흡에 있다고 본다. 이런 태도나 동기는 일에 대해 가치를 별로 두지 않는 것, 가족에 대한 약한 책임감, 무력감, 의존적 태도, 열등감, 포기, 운명론 등을 포함한다. 이는 빈곤계층으로 하여금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을 가로막아 결국 계속 빈곤층에 남아 있도록 한다는 이론이다(송승숙, 2010).

2. 여성의 취업과 자활의지

1) 여성과 취업

외환위기 이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성고용률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낮으며, 임금, 근무환경, 고용안정성, 사회보험 적용 등 고용의 질도 남성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금재호, 2011). 또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빨리 노동시장을 이탈하며 잦은 진입과 이탈을

반복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최근 서구의 여성들이, 연속적인 노동시장 참여형태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여성들은 여전히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 시기 동안에는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전통적인 M-형¹⁰⁾ 노동시장 참여 형태를 보이고 있다(민현주, 2009). 예를 들면, 2001년 현재, 미국의 결혼한 여성 중 61.6%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의 62.7%가 취업하고 있다(U.S. Census Bureau 2002).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 여성들은, 학력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많은 여성들이 결혼과 함께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 현재, 4년제 대학이나 그 이상의 교육을 마친 미혼 여성들의 65.6%가 취업하고 있으나, 같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는 기혼여성들 중 단지 46.3%만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통계청 2007). 여성들 대부분의 비경제활동 사유는 육아·가사에 기인하는데, 따라서 이들은 육아가 끝날 때 까지 상당기간 비경제활동 상태에 머무르게 되며 육아기 이후에 노동시장에 재취업하기 위해서는 기술 숙련도의 마모 및 제한된 구직정보에 의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대부분 하위 직종의 직업으로 재취업을 하는 것으로 기존 연구는 분석하고 있다(장서영 외, 2007). 특히 M자로 떨어지는 지점인 30-35세 구간의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은 과거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오은진외, 2008). 주목해야 할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의 문제는 저학력 여성들이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오히려 청년시기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반면 고학력 여성들은 30대 초반에 이탈한 후에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지 못하는 L자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고급인력 유희화의 문제(오은진, 2009)도 심각하게 언급되고 있다.

여성들은 여전히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자로 역할을 수행하며 남성에 비해 자녀양육을 포함하는 가사노동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Becker, 1991; Polachek, 1979, 1981). 가족형성주기에 초점을 두는 여성의 경제활동은 비연속적이며 간헐적인 노동시장 참여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주변적 지위, 모성 및 아내로서의 책임 및 보살핌

10) 여성노동시장의 대표적 특징인 연령대별 M자형 고용률 패턴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고용률이 저점에 도달하는 연령이 1997년의 27~29세에서 1998~2005년 30~32세, 2006~2009년 33~35세로 이동하였다. 고졸과 전문대졸 여성이 M자형 고용률의 원인으로, 중졸 이하와 4년제 대졸 이상에서는 M자형이 아닌 역 U자형과 L자형을 보인다(김재호 외, 2011).

노동으로 인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자체가 어려운 점, 그리고 진입을 하더라도 불안정한 진입이나 가족생활로 인한 잦은 이탈과 재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이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어렵게 하고 빈곤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된다.

여권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차별은 여성을 무급보호노동에 전담케 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취업 기회를 제한하고, 상대적 저임금화 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여성 빈곤을 초래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성별 노동 분리에 기초하여 여성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가족임금 이데올로기에 의해,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일지라도 빈곤 위험에서 온전히 벗어나 ‘독립적’ 시민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남성 부양자/여성 의존자’ 라는 성별분업 논리가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을 이차적 노동자로 제한하고 여성의 저임금을 합리화하기 때문이다(Barrett & McIntosh, 1980). 그 때문에 여성을 양육과 가사노동 책임자로 한정하는 가족 내 성별분업 논리는 노동시장으로까지 확장되어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소위 ‘여성에게 적합한 여성직’ 을 형성하도록 하며, 이러한 여성 직종에는 주로 저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사회 전반에서 여성 노동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Sarvasy와 Allen, 1984).

<표 3>와 같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고용이 여성에 집중되는 현상은 여성고용의 비정규직화와 맞물려 생각할 수 있다.

<표 3> 근로시간 기준과 고용형태 기준에 따른 여성 단시간근로

(단위 :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임금근로자		5,866	6,096	6,286	6,442	6,647	6,737	6,964	7,265
근로시간 기준	36시간 미만 단시간	1,316 (22.4)	962 (15.8)	1,370 (21.8)	1,497 (23.2)	1,837 (27.6)	1,840 (27.3)	1,374 (19.7)	1,443 (19.9)
	36시간 이상 전시간	4,550 (77.6)	5,133 (84.2)	4,916 (78.2)	4,946 (76.8)	4,811 (72.4)	4,897 (72.7)	5,590 (80.3)	5,822 (80.1)
고용형태 기준	시간제	689 (11.7)	794 (13.0)	736 (11.7)	790 (12.3)	843 (12.7)	857 (12.7)	1,058 (15.2)	1,194 (16.4)
	전일제	5,177 (88.3)	5,302 (87.0)	5,550 (88.3)	5,653 (87.7)	5,804 (87.3)	5,881 (87.3)	5,906 (84.8)	6,071 (83.6)

주 : ()안은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시간제고용의 여성화 현상가정과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 기혼여성에게 고용의 기회가 확대된다는 긍정적 측면을 내세우고 있는 시간제고용의 여성화 현상은 <표 4>에서도 나타나듯이 단순노무직이 집중되는 시간제 일자리의 특성상 시간제고용이 임금이나 근로조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주된 대상인 여성의 지위약화로 귀결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

저소득 여성의 취업·경제활동 참여의 본질적 특성은 저임금 노동이라는 점과 자신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경제활동이기보다 빈곤을 원인으로 야기된 생계유지를 위한 역할분담의 의미이며, 비전문적이고 부분적인 분야의 종사로 여긴다.

<표 4> 근로형태별 여성고용 비중(2005년, 2010년)

(단위 : 천 명, %)

	전 체		여 성		각 고용형태별 여성 비중	
	2005	2010	2005	2010	2005	2010
임금	14,968	17,048	6,286	7,265	(42.0)	(42.6)
정규직	9,486	11,362	3,539	4,228	(37.3)	(37.2)
비정규직	5,483	5,685	2,747	3,037	(50.1)	(53.4)
한시적	3,614	3,281	1,750	1,704	(48.4)	(52.0)
기간제	2,728	2,494	1,244	1,283	(45.6)	(51.5)
계약반복	302	305	131	137	(43.3)	(44.9)
기대불가	585	481	376	284	(64.2)	(59.0)
시간제	1,044	1,620	736	1,194	(70.4)	(73.7)
비전형	1,907	2,289	941	1,074	(49.3)	(46.9)
파견	118	211	75	107	(63.6)	(50.7)
용역	431	608	183	274	(42.6)	(45.1)
특수	633	590	394	397	(62.2)	(67.3)
가내	141	70	127	65	(90.1)	(93.0)
호출	718	870	252	263	(35.1)	(30.3)

주 : ()안은 각 고용형태 대비 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과 함께 사회적 보호에 있어서의 여성의 주변화도 여성 빈곤에 있어 주목할 만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Muller, 1983; Ruth Sidel,

1992; Buvinvic, 1997).

또한 사회보장제도 역시 노동시장의 활동을 전제로 하는 설계를 담고 있어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구조가 사회보장제도로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여성이 사회보장수혜에서 불평등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Millar and Glendinning, 1989; Millar, 1996; 강남식 외, 2001; 김영란, 1997; 박영란 외, 2003; 이상록, 2001; 이혜경 외, 2002; 한혜경, 2001).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는 남성중심의 부양자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남성은 경제적 제공자이며, 여성은 보호자라는 성별 노동 분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여성은 자녀, 노인, 장애인, 질병인 등을 돌본다는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는 그대로 복지제도에 반영되어 빈곤에 가장 취약한 집단은 그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생계부양자인 남자의 부재로 인해 생계유지자가 된 여성 가구주들이 불리하게 되어 이들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효과적인 경로에 접근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이는 여성가구주의 경제상태, 노동시장의 성차별, 성 불평등한 복지정책의 상호교차 속에서 빈곤의 여성화를 지속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란, 1997).

이처럼 저소득 여성은 여성이라는 성적 특성과 빈곤이라는 계층적 특성으로 인해 이중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여성에게 깊이 내재되어 신체적인 부분에서만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그러한 요인은 여성의 취업에 영향을 주고 빈곤의 장기화와 대물림으로 연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 여성의 자활의지

자활의지를 이해하기 앞서 자활이란 개념과 의지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자활의 사전적 의미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자활은 개인이 물질적, 사회적 빈곤과 노동으로부터 소외를 극복하고 사회주류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상태 또는 이를 실현화 하는 과정 ‘이라고 볼 수 있다.(김윤경, 2002) 여기서 자활은 공공부조가 필요 없는 수준으로 ’ 독립 ‘한 상태를 의미하는지

혹은 공공부조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자신의 기능과 소득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지에 쟁점을 두어야 한다.¹¹⁾ 한마디로 '경제적 자활'을 개념으로 정의 하고 있다.

김수현(2001)은 연구에서 '실직상태에 있거나 불안한 생계수단을 가진 사람들에게 취업, 창업, 창업대출 등을 제공하여 근로를 통한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과정'으로 '자활'의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자활이란 공공부조 대상자에서 벗어나고, 자활지원사업이 기본적인 생계보장의 바탕 위에서 재활 및 자활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자활관련 선행연구에서 자활의 의미는 복합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먼저, 자활이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욕구간의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Pearce and Brooks, 1999; 박영란, 1998). 즉, 식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육을 포기한다거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적인 요구를 포기하게 되어서는 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소한의 주거와 생계를 노동시장의 취업으로 인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의미 또한 자활의 개념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박경숙·박능후, 2001).

자활의 정의는 연구자와 연구대상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대부분 자활을 경제적인 자활로 구분하여 연구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을 가진 자활의 정의를 경제적 자활, 정서적 자활, 사회적 자활로 세분화 하여 살펴보고자한다.

가) 경제적 자활

소득향상과 고용유지를 통한 탈빈곤에 초점을 맞춘 것이 경제적 자활이다.

경제적 자활에 대한 개념정의는 광의의 자활개념과 협의의 자활개념으로 구분된다. 광의의 경제적 자활은 “더 이상 복지급여를 받지 않고 노동과 소득 측면에서 최소한 가장 낮은 수준의 중산층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상태”(Hawkins, 2002), “스스로의 취업노력에 의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가의 보호로부터 벗

11) 삶의 질 향상기획단, 「공동체와 함께하는 자활지원」, 2001

어나는 것” (박경숙, 2001)이다. 협의의 경제적 자활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기술, 능력 한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하는 상태” (Freeman, 1997), “공공부조를 통해 기초생활이 보장된 상태에서 국가와 지역사회에 의해 제공되는 자신에게 적합한 일(proper job)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는 상태” (삶의질향상기획단, 2000)이다. 허만형(1995)은 경제적 자활자립을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 요인에 의해 정부의 보호로부터 탈피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강철희(1997)는 자활보호가구가 자활프로그램수급에서 탈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경제적 자활을 설명하고 있다.

경제적 자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한 연구는 수급자의 개인적 특성중 교육정도와 근로 경험여부라는 인적자본의 취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Moffitt, 1992; Harris, 1996; Hawkins, 2002). Bane & Ellwood(1986)는 가구주의 수입증가, 모자가정의 경우는 여성가구주의 결혼, 배우자와 다른 가족 구성원의 수입 등 구조적 특성이 경제적 자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나) 정서적 자활

정서적 자활은 “외부 의존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생각과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자립의지” (박경숙, 2001), “빈곤으로부터 탈피하여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는 동기, 열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자활을 원조하는 자활후견기관의 활동과 프로그램에 만족을 느끼고 취업에 대한 기대를 가지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으로서 자활의욕” (강남식 외, 2002)으로 정의하고 있다. 박영란 등(1999)은 변화 상황에 대처하는 정서적 자활로 “자립의지는 자신감, 자신의 상황에 대한 자기 통제력, 문제 해결의지 등의 개념을 포함한다” 고 정의한다.

정서적 자활과 관련된 연구에서 Johnson & Stromsdorfer(1990)는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프로그램 참여동안의 범죄감소, 노동에 대한 태도향상, 정신적·육체적 건강의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김영미, 2002에서 재인용). Howard(2000)는 미국의 AFDC수급자의 고용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질적 연구에서 고용지위와 스트레스, 우울, 효능감, 경제적 압박과는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Amy(2001)의 MFIP(Minnesota Family Investment Program) 연구에서도 수급자들의 자활 효능감(self-sufficiency self-efficacy), 구직 효능감(job self-efficacy), 목표 몰입(goal commitment) 등의 심리적 요인이 사회인구학적 변인들보다 복지수급에서 탈피하는데 중요한 요인 이라고 주장한다.

이상록 등(2003)은 자활사업의 탈빈곤 정책의 효과분석에서 근로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의 형성,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의 형성, 생활태도에서의 긍정적 변화, 자립관련 요소들의 제고 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자활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김교성 등(2003)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나 자격증 소유여부 등의 인적자본 관련 변수는 경제적 자활 진입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취업대상자의 취업욕구가 높을수록 경제적 자활 진입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 사회적 자활

사회적 자활은 “활발한 대인관계나 사회활동을 통해 사회적응을 하게 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박경숙, 2001). 즉, 사회적으로 자활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네트워킹(networking)의 존재여부와 사회참여정도로 설명한다. 예컨대, 국회의원투표 참가여부, 사회활동 참가여부, 가족·친척들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 존재와 유형, 친지·이웃과의 경제적 도움과 형태 등이 있다.

미국의 AFDC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성가구주의 근로이행은 여성가구주 자신의 삶의 만족뿐만 아니라 자녀 그리고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ber, Brooks-Gun & Mayard, 1995). 한국의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이상록 등(2003)의 연구에서도 자활사업 참여로 가족관계에는 불화의 감소, 가족과 친지들의 우호적 태도 변화, 가족과 친지들의 원조 제고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한다.

더욱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족기능과 지역사회로부터의 지지가 경제적 어려

움의 정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유태균 외, 2003)에 비추어 볼 때,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회적 자활의 변화도 함께 측정해야 할 것이다.

의지는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며, 심리적으로 ‘선택이나 행위의 결정에 대한 내적이고 개인적인 역량’을 말하는 것으로 어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의식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내적욕구이다.

앞서 살펴본 ‘자활’과 ‘의지’의 정의에 따라 자활의지는 “외부의 의존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생각과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것으로서 자립의지” (박경숙·박능후, 2001), “빈곤으로부터 탈피하여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는 동기, 열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의존 무력감에서 벗어나 정서적으로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자활의지 수준이며, 자활을 원조하는 자활후견기관의 활동 및 프로그램에 만족을 느끼고 취업에 대한 기대를 가지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자활의욕” (강남식 외, 2002)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 “외부의 의존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생각과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것” 박영란·강철희(1999) 변화상황에 대처하는 정서적 자활로의 자립의지는 자신감, 자신의 상황에 대한 통제력, 문제해결의지 등이 포함된다고 정의한다. Halvorsen(1998)은 ‘자활의지란 변화상황에 대한 자신감 및 자아통제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클라이언트들이 사회의 여러 가지 체도를 활용하고 생활의 변화를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고 정의, 그러므로 자립의지는 자기 결정과 자기선택을 포함하며, 그에 대한 결과에 책임지는 심리적 자립에 포함된다(정은주, 1998). Johnson and Stromsdorfer(1990)의 연구에서도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프로그램 참여 동안의 범죄감소, 노동에 대한 태도 향상,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증진과 같은 정서적 자활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김영미, 2002).

3) 자활의지 관련 이론

저소득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활의지를 높이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자활의지를 명확히 정의하고 자활증진을 위해 개발

된 구조화된 이론은 충분히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 여성인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연구 중 자활근로의지에 관한 연구(이정화, 1998)에서 제시된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에서 제시된 대표적인 이론은 Maslow의 욕구위계이론, Adams의 공정이론, Vroom의 기대이론, Locke의 목표설정이론 이다.

(1) Maslow의 욕구위계이론

Maslow의 욕구위계이론은 자활근로 의욕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이론으로써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존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생리적 욕구는 인간의 생명자체를 유지시켜주는 기본적인 욕구로서 의식주와 관련되며 본능적인 생리현상에 따른 욕구를 말한다. 둘째, 안전의 욕구는 일상생활에서 정신적·신체적 안전을 추구하는 욕구를 의미하며 셋째, 소속과 애정의 욕구는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어느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 하고 사랑과 우정을 나누고 싶어 하는 욕구를 말한다. 넷째, 자존의 욕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경향인데 권력, 명예, 지위의 상승을 추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인간의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인 자아실현의 욕구 즉,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가장 완전하고 창조적으로 꾸준한 성장을 추구하며 자신의 존재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한다(문진곤, 2004).

(2) 공정성 이론

공정성이론은 지속적인 노력여부의 결정을 인지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한다는 점에서 기대이론과 비슷하지만, 무조건 많이 가질수록 좋다는 것보다는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가에 따라서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을 중시한다(J. Arnold et al., 1991). 공정성이론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지만 주로 인용되는 것은 Adams(1965)가 인간들의 상호관계 맥락에서 전개한 다음의 전제를 바탕

으로 한다. 첫째,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투입에 대한 결과의 비율을 따질 때 타인의 경우와 비교해서 관계를 평가하고, 둘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투입대비 결과가 불공평하다고 인지하면 공평하지 않은 것이다. 셋째,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괴로움도 커지고, 넷째, 괴로움이 커질수록 다시 공정하게 일하기도 더 어려워진다. 따라서 스스로 공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투입이나 결과를 바꾸거나 관계를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게 된다(Huseman et al, 1987). 즉, 인간은 자신의 기여에 대한 보상간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동기를 부여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Arnold et al., 1991;민묘숙, 2006 재인용).

(3) 기대 이론

인지적 관점에서는 사람들을 자기가 바라는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활동에 노력을 기울이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라고 가정한다. Vroom은 직무성과, 유의성(valence), 도구성(instrumentality), 기대(expectancy), 힘의 5가지 요인이 기대이론의 주요인으로 이들이 상호작용하여 근로자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직무성과는 급여, 승진, 휴가 등과 같이 기관이 근로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유의성은 성과에 대해 근로자가 느끼는 감정으로 성과가 지니는 매력의 정도, 혹은 성과로부터 예상되는 만족을 의미한다. 도구성은 업무의 수행과 성과 획득사이의 관계에 대한 근로자의 주관적 지각으로 정의되며, 기대는 어떤 업무에서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라는 기대감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대감은 자신감의 강화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힘은 동기가 부여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노력 혹은 압력의 양이다. 힘이 크면 클수록 동기도 커진다.

기대이론은 단순한 물질적 성과 외에 근로자 개인의 근로에 대한 가치관과 자신감, 그리고 직무만족 등의 정서적 변수를 중요시한다는 측면에서 자활의지의 측정 시 이용하기 좋은 이론이다(이병하, 2004).

(4) 목표설정 이론

목표설정 이론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가정에 기초한 동기이론이다. 목표는 동기의 기초이며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을 이끄는 핵심 요소이다.

단, 목표가 업무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개인이 목표를 알고 있어야 하고, 또한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며, 개인이 목표를 기꺼이 달성 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목표가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게 보일 때 또는 개인이 목표달성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할 때 개인이 목표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목표에 대한 몰입이 목표의 난이도에 비례하며, 구체적일수록, 개인이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목표와 더욱 관련된 행동을 하게 된다. 개인이 업무수행에 대하여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피드백은 그가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할지 또는 지금과 같은 정도로 계속해서 되는지를 알려준다. Locke(1981) 등은 12년 동안의 목표설정연구들을 개관하고, 이론의 타당성을 확인하면서 근로자들이 충분한 능력을 지니고, 수행도중에 목표와 관련된 피드백이 제공되고, 목표달성에 대하여 보상이 주어질 때, 그리고 개인이 할당된 목표를 수용할 때, 업무 수행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밝혀냈다(이병하, 2003).

지금까지 살펴 본 이론을 바탕으로 저소득여성의 빈곤문제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 탈빈곤, 탈수급과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여성들의 자활의지 등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에 대한 규명이 시도되고 있으나 이들 연구들은 저소득여성들의 자활의 경험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저소득여성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자활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이론에 기반한 정책적, 실천적 접근이 새롭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3. 저소득 여성의 자활의지 관련 선행연구

1) 개인적 특성이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

박영란·강철희(1999)는 “저소득 모자가정 가구 중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하고, 한 달 평균수입과 저축액이 높을수록 자립의지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안중순(2001)은 ‘저소득 여성가구의 경제적 자활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자활의지에 개인의 근로의욕, 자신감, 또는 자립심 등의 개념을 포함한 연구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활의지가 높은 것으로 연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자활의지는 평균 19.4667로서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근로능력유지가 가능한 연령 50세 이하의 평균 자활의지가 19.85이고 근로능력유지가 어려운 51세 이상의 평균 자활의지가 17.42로 연령 50세 이하의 여성가구의 자활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이거나 일상생활이 가능하더라도 취업활동은 할 수 없다고 응답한 여성가구가 평균 자활의지 15.36, 취업활동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여성가구는 평균 자활의지 19.88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활의지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Marinson(2001)은 미국의 7개 지역에서 운영되는 Welfare-to-Work 프로그램에 대한 실험적 평가자료인 NEWWS(National Evaluation Welfare-to-Work Strategies)에 기초한 분석을 통해 자활의 핵심인 취업에 성공한 수급자들의 학력수준은 고등학교이상의 특성을 보인다고 하고 있다(김교성 외, 2003).

또한, William(2002:111)은 미국의 NLSY(1979-1998) 데이터를 이용해 수급자의 교육수준과 일자리 유지(job tenure)와의 비교분석에서 교육수준은 일자리 유지와의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자리 유지기간도 더 길다는 것이다.

Plotnick(1983)의 연구는 프로그램 탈피에 있어 가구의 나이가 정적인 영향

을 끼치며 프로그램 수당 증가는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또한 그는 교육이나 장애의 정도, 프로그램 이외의 소득은 프로그램 탈피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Leahy, Buss, & Quane(1995)은 여성들의 경우 가구 구조 변화에 의해 빈곤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되기 쉽다고 하였고, 이들 여성들이 빈곤 프로그램의 수당보다 더 높은 수입을 제공하는 직장을 갖게 될 때 빈곤에서 탈피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Harris(1993)의 연구에서는 빈곤 프로그램으로부터 탈피하였다가 다시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그 요인으로는 나이가 적을수록, 도시에서 거주할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어린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했다.

빈곤 편모가정의 빈곤 탈피에 대한 AFDC 수당 수준의 영향력에 대해 연구한 Butler(1996)는 AFDC 수당 수준이 일반 빈곤 기준을 사용하였을 때 빈곤으로부터의 탈피를 더 빠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며, 빈곤탈피의 방법(소득증대와 결혼)과 개인적인 특성(나이, 직업경력) 또한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2) 개인의 심리적 자원 및 사회적지지 자원이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

최근 많은 기존 실증연구들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복지수급 간 부적 관계”를 검증하여 수급자의 심리사회적 측면과 자활자립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Goodbasn, 1985; Mcloyd&Wilson, 1991, Jarrett, 1996; Pavetti et al, 1997; 이상록·진재문, 2003 재인용). 과정적 자활효과성을 측정하고 있는 국내 문헌을 살펴보면, 우선 강남식·신은주·성정현(2002)은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기관의 유형에 따라 ‘자활의욕’을 비교분석하였다. 여기서 자활의욕은 자활후견기관의 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감과 취업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포함한다.

김세원(2005)은 자활의지와 태도를 변인으로 한 효과성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긍정적 자활의지와 태도는 탈빈곤 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강철희(1997)는 빈곤여성가구주를 대상으로 자립의지 정도를 측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가 자립의 척도라 할 수 있는 근로의욕을 유인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다.

김은선(2005)은 자아존중감과 효능감이 높을수록, 삶의 목적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자활이 높게 나타나며 자신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고, 문제 상황에서 자기조절력이 높을수록 자활의지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빈곤 여성 가구주의 자아존중감을 살펴보면, 신뢰도는 $\alpha = .8597$ 이며, 평균 2.77점(표준편차 = .554, 범위=1점~4점)으로, ‘거의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삶의 목적의 점수를 보았을 때, 최소 62점부터 최대 133점으로 평균은 92.6146(표준편차=13.52298)으로 이는 한국의 일반성인의 삶의 목적 수준인 98.41보다 낮게 나타났으며(이동희, 2002), 91점을 겨우 넘은 중간단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변규란 외(2007)의 연구에 의하면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한부모 여성가구주의 인구학적 요인 가운데 건강상태, 숙련기술, 자격증 여부, 심리적 요인 가운데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숙련기술 및 자격증을 취득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립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자보호시설 한부모여성가구주의 자아존중감은, 가구주의 일반적인 특성에 나타나는 제한적 요인들을 극복하고 심신의 건강은 물론 가족의 건강한 발달과 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한부모 여성가구주의 요인 가운데 공식 사회적 지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고, 결국 공식 사회적 지원이 많을수록 자립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식 사회적 지원은, 가구주의 일반적인 특성에 나타나는 제한적 요인들을 극복하고 심신의 건강은 물론 가족의 건강한 발달과 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Taylor(2001)는 수급자들의 긍정적인 인식과 자아 존중감은 고용상의 지위나 수급기관 등과 연관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수급자의 태도와 인식이 고용과 자립을 결정함을 시사 한다는 도시연구소의 조사도 뒤를 이었다(Meyer, 1999). 강남식·신은주·성정현(2002)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빈곤여성수급자들이 상담 및 교육에 참여한 이후 자활의욕이 생기고, 자활프로그램이 노동의욕의 고취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의 단초를 제공해 주었다고, 하고 자활의욕이 생긴 이유를 살펴보면 ‘같은 사람들을 만나 서로 격려하고 위로가 되어서’와 ‘기관의 담당자들이 친절하게 배려하고 격려해서’가 이유였다. 또 사업단 배치과정에서 자신의 적성과 의견을 반영할수록, 또 서비스 전달자의 태도와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이 상담 및 자활과정을 거치는 동안 수급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급자 자활의욕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었다. 이 연구는 여성자활자의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활후견기관의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외적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상으로 인한 안면장애인의 사회적 지지와 자립의지와 관계를 연구한 김동화(2006)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 유형 중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가 자립의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 그 중 물질적인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자립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했다.

유태균 외(2003)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로부터의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지지를 받는 정도가 높을수록 자활사업 참여가구가 경제적으로 고위험에 속할 가능성이 0.6배까지 낮아진다고 밝히고 있다. 허태헌(2005)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체계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요인이 참여자의 자립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순(1997)은 저소득층의 자립방안 연구에서 저소득층 스스로가 자립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지원체계로부터의 소외와 사회적 무관심 때문에 자립의지가 약화됨으로 저소득층의 자립에는 지역사회의 복지기관 혹은 이웃의 관심과 지지가 더욱 절실하다고 보고하였다.

3) 경제적 특성 및 취업관련 특성이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

박영란·강철희(1999)는 또한 직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직업훈련의 경험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고 우울정도가 낮을수록, 의식 있는 여성일수록 자립의지가 높다고 하였다.

Cancian 등(2000)은 위시콘신 주의 TANF 프로그램 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과 소득 등에 관한 분석에서 이전 고용경력이 미흡한 수급자일수록 상시직에 고용될 확률은 낮고, 소득수준도 낮은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과거의 근로경험이 적을수록 장기적인 복지수급에 따른 실업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다수이다(O'Neill et al., 1987; Leahy et al., 1995; Bane & Ellwood, 1994).

빈곤가구주의 경우 가족의 구조적 특성과 상관없이 교육수준은 고용과 소득 그리고 자활에 유의미한 결정요소라고 한다(Harris, 1991; Danziger et al., 2000).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성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노동 시장을 통한 여성의 인적자본 효과이거나 혹은 학력이나 소득이 유사한 계층간의 혼인형태인 동류혼 assortative mating)에 의해 전 남편을 통한 가족지위 효과가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여지영, 2003).

Boskin & Nold(1975)의 연구는 최저 임금 수준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프로그램으로부터 탈피할 가능성이 훨씬 낮고 탈피하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프로그램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음을 지적하였다.

Hutchens(1981)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없을 때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수준과 시장에서의 시간당 임금의 수준, 그리고 가구주의 나이와 지역적인 차이가 프로그램 탈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의 연구는 자녀의 수, 교육의 정도 그리고 노동을 제한하는 장애의 정도 등은 프로그램 탈피 여부에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아님을 보고하고 있다.

Bane & Ellwood(1986)는 모자가정의 경우 여성가구주의 결혼, 다른 가족 구성원의 수입 등이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가구주에 의한 것이든,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에 의한 것이든 이들에 의한 수입의 증가가 빈곤탈피의 75%를 설명한다는 것이다.

Petersen(1995)의 연구는 고용의 상태가 길수록, 6개월 이상의 노동 경험이

많을수록, 교육의 정도가 높을수록, 어린자녀가 없을수록 AFDC 프로그램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빨리 탈피하는 것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상태와 AFDC 수당의 수준은 별로 중요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보며, 빈곤 탈피를 위해서는 교육의 제공과 아울러 삶을 독립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적절한 노동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영향요인 외에 김영미(2002)의 연구에서는 자활지원사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활사업의 어떠한 요소가 여성 참여자의 자립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를 파악해 보았다. 여기에 효과성의 개념을 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욕과 소득변화로 설정하였고, 사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업내적요인과 사업외적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는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기는 하였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어떠한 사업요인이 효과성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밝히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본다.

신은주(2001)는 여성조건부 수급자들을 상으로 한 조사에서 기관의 유형, 사업단의 배치 과정 시 의견반영여부, 기관담당자의 배려정도, 그리고 동료 간의 관계정도가 자활의욕과 정적 상관성이 있음을 제시하였고, 문진곤(2004)은 동료와의 관계, 운영기관 신뢰도, 자활기여 기대도, 학력, 자활사업 참여기간, 가족관계 만족도, 자활근로 시간, 자활사업에 대한 필요성 인식도, 실무자와의 상담횟수가 자활의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저소득 여성의 자활에 있어서 자활의지는 빈곤탈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종속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수 설정과 종속변수인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본 연구결과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활의지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개인적 특성 변인, 개인의 심리 및 사회적지지 관련 변인, 경제적 특성 및 취업관련 변인으로 범주화하고자 한다.

<표 5> 저소득 여성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연구자	연구주제	연구결과(유의미한 요인)
Petersen, C. D. (1995)	"Female-headed families on AFDC: Who leaves welfare quickly and who doesn't"	교육의 정도, 고용의 상태, 6개월 이상의 노동 경험, 어린아이의 유무
Butler(1996)	빈곤 편모가정의 빈곤 탈피에 대한 AFDC 수당 수준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	소득증대, 결혼, 나이, 직업경력
강철희(1997)	빈곤여성가구주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적 지지
박영란·강철희(1999)	저소득 모자가정 가구 중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교육수준, 건강상태, 월 평균수입, 저축액, 직업에 대한 태도, 직업훈련경험, 삶의 만족도, 우울정도, 의식유무
신은주(2001)	여성 조건부 수급자들의 실태와 자활의욕에 관한 연구	기관의 유형, 사업단의 배치 과정에서의 건반영여부, 기관담당자의 배려정도, 동료 간의 관계정도
안종순(2001)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경제적 자활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근로의욕, 자신감(자립심), 연령, 건강상태
김영미(2002)	자활지원사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여성참여자 대상	사업내적요인, 사업외적요인
김은선(2005)	빈곤여성가구주의 심리·사회적 요인이 자활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효능감, 삶의 목적수준
민묘숙(2006)	여성자활 참여자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부지원금, 건강상태, 자활사업 유형, 사업담당자의 성별, 사업담당자의 의지, 상담횟수, 담당직원과의 관계, 지역내 자활사업의 필요인식
최은주(2007)	빈곤 여성가구주의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지지, 가족 결속력, 월 평균 수입, 보호대상
변규란(2007)	한부모 여성가구주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건강상태, 숙련기술, 자격증,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원
Leahy, Buss, & Quane(1995)	"Time on Welfare: Why Do People Enter and Leave the System?"	빈곤 프로그램의 수당 보다 더 높은 수입을 제공하는 직장
Bane & Ellwood(1986)	"Slipping Into and Out of Poverty: The Dynamics of Spells"	결혼, 다른 가족 구성원의 수입
Cancian 등(2000)	위시콘신 주의 TANF프로그램 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과 소득 등에 관한 분석	고용경력, 근로경험
Marinson(2001)	Welfare-to-Work 프로그램에 대한 실험적 평가자료 NEWS에 기초한 분석	학력수준
William(2002)	미국의 NLSY(1979-1998) 데이터를 이용한 수급자의 교육수준과 일자리 유지(job tenure)와의 비교분석	교육수준
문진곤(2004)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자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연구	동료와의 관계, 운영기관 신뢰도, 자활기여 기대도, 학력, 자활사업 참여기간, 가족관계 만족도, 자활근로 시간, 자활사업에 대한 필요성 인식도, 실무자와의 상담 횟수
허태현(2005)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의 목적 및 연구내용

본 연구는 저소득 여성들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저소득 여성들의 자활의지를 효과적으로 고취 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제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활의지에 대해 문진곤(2004)은 자활의지란 ‘소득의 부재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생계보호에 안주하지 않고 노동을 통해 스스로 자립에 이르려는 심리적 능력’ 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활의지를 살펴보기 위해 개인의 일반적 특성, 개인의 심리(자아존중감, 가족결속력) 및 사회적 지지자원 변수, 경제적 특성 및 취업관련 변수 등 3가지 변수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갖는다.

첫째, 저소득 여성들의 개인적 특성 변수는 자활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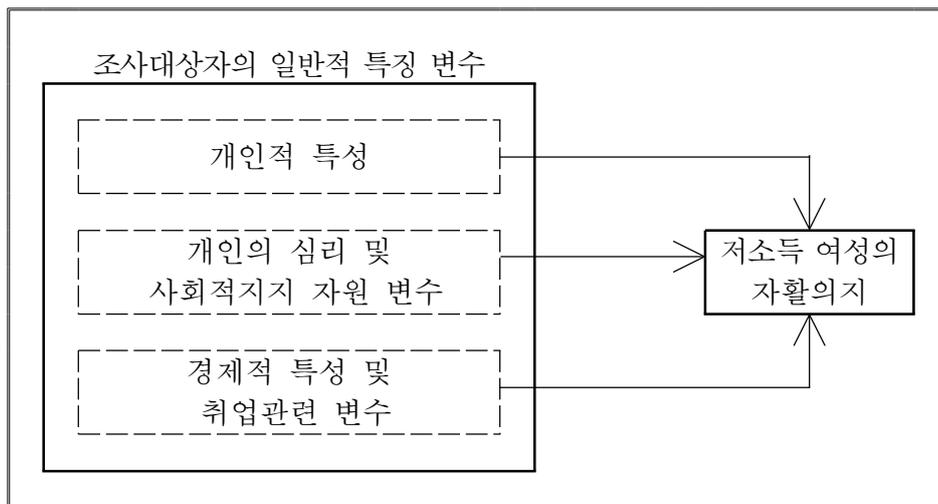
둘째, 저소득 여성들의 개인의 심리적 자원 및 사회적지지 자원 변수는 자활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분석한다.

셋째, 저소득 여성들의 경제적 특성 및 취업관련 변수는 자활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분석한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목적에 바탕으로 한 연구모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연구모형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사회에서 복지사업의 일차적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 여성 350명을 임의로 선정해 표본을 추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2011년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신뢰도를 검토, 분석 후 부적절한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11년 9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50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고, 부실응답 등 적합하지 않은 조사대상자를 제외한 30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4. 측정도구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저소득여성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최은주(2007), 안중순(2001), 하유진(2007) 논문에서 사용한 설문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57문항으로 조사대상자의 개인의 특성 관련 문항(6), 개인의 심리 및 사회적 지지자원 관련 문항(26), 경제적 특성 및 취업관련 문항(18), 자활의지 관련 문항(7)으로 구성되었다.

개인의 심리 및 사회적 지지자원 관련 문항과 자활의지를 묻는 질문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을 부여하였다. 심리적 자원에는 자아존중감 척도, 가족결속력 척도의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사회적지지 자원 척도는 도구적지지, 평가적지지, 정서적지지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Cronbach's α)를 이용하여 설문문항의 신뢰도를 측정된 값은 자아존중감 .733, 가족결속력 .872, 도구적지지 .852, 평가적지지 .892, 정서적지지 .869, 자활의지 .830으로 나타났으며, 각 문항별 신뢰도를 종합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측정도구 문항의 신뢰도

구 분		문항수	Cronbach's α
심리적 자원	자아존중감	7	.733
	가족결속력	4	.872
사회적 지지자원	도구적지지	5	.852
	평가적지지	5	.892
	정서적지지	5	.869
자활의지에 대한 인식		7	.830

1) 종속변수

(1) 자활의지

본 연구에서의 자활개념은 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process)적 측면에 비중을 두었고, 자활의지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자활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로 개념화 하였다. 박경숙(2001), 김은선(2005), 최은주(2007)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활의지에 대한 척도를 재구성하여 7개의 항목을 측정하였다. 자활의지는 개인의 근로의욕, 자신감, 자립심 등의 개념을 내포하는 질문들로 구성하여 자활의지를 측정하였다.

2) 독립변수

(1) 심리적 자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김은선(2005), 하유진(2007)이 수정한 것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알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부정적인 문항(6,7번)은 역산하였다. 5점 리커트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점수가 주어지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이다.

가족 구성원 간 기대의 공유, 공동목표, 친밀성과 유대감, 만족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결속력 척도는 최은주(2007)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 알맞게 문항을 구성하여 5점 리커트척도로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점수가 주어지며, 총점이 높을수록 가족결속력이 높은 것이다.

(2) 사회적지지 자원

사회적지지 자원 척도는 저소득여성이 친구들로부터 받는 지지의 다양한 측면들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박지원(1985), 최은주(2007)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 알맞게 문항을 구성하였다. 도구적지지(돈, 물건), 평가적지지(객관적 판단, 해결방안 제시), 정서적지지(이해, 격려, 관심)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5.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Cronbach's α 값의 산출을 통해 사용된 문항의 신뢰도를 검사하였다. 주요변인에 따른 자활의지의 차이 검증을 위해 변수 및 변인별로 t-test 및 ANOVA analysis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는 Duncan's Multiple Range 검증을 이용하였다. 또한 주요변인이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각 변수에 따른 특성은 <표 7>과 같다. 응답자의 연령은 39세 이하가 45명으로 14.8%, 40-49세 이하가 155명 51.0%, 50세 이상이 104명에 34.2%로 평균 연령은 46.6세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로는 배우자 있음이 34.0%, 미혼, 이혼, 재혼, 사별 등의 기타 응답이 66.0%로 배우자 있음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가 25.7%, 고졸이 57.2%, 전문대졸 이상이 17.1%로 고졸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건강상태는 122명이 건강하다고 응답하여 40.4%로 가장 높았다.

자녀의 수를 묻는 질문에는 ‘없다’에 18명으로 19.3%, 1명이 46명으로 49.5%, 2명 이상이 29명 31.2%로 조사되었는데 총 응답인원이 83명으로 전체 응답자 304명에서 미혼상태인 107명의 인원을 제외하고도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것은 현재 혼인의 기타상태에 따른 이유로 부양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응답을 회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장애나 질병이 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69.2%가 장애와 질병 모두 없다고 응답하였다.

자아존중감 관련 문항은 평균값이 3.32점, 가족결속력 관련 문항의 평균값은 3.38점, 사회적 지지자원의 하위영역인 도구적지지의 평균값은 3.01점, 평가적 지지와 정서적지지의 평균값은 각 3.30점, 3.21점으로 조사되었다.

주택소유유형을 조사하였는데 자가와 전세의 비율보다 기타로 응답한 비율이 71.1%로 상당히 높았다. 기타에는 월세와 전세+월세, 무료임대 및 영구임대의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이 42.6%, 기타응답이 57.4%로 단독주택보다 기타의 주택종류에 거주율이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를 선택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능력에 맞추어서라는 응답비율이 67.3%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살고 있는 집의 크기는 20평 이하가 75.5%, 21평 이상이 24.5%로 조사되었다. 집의 평균크기는 20.6평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임대료는 30

만 원 이하가 67.9%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계 재정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응답으로는 ‘어려운편이다’ 라는 응답이 69.4%, ‘안정된 편이다’ 라는 응답은 30.6%로 조사되었다. 가구의 소득원으로 본인인 78.7%로 가구에서 본인 혼자 소득원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본인+배우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15.6%, 본인+기타 소득원 4.0%, 본인+부모님 1.7%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개인 소득은 80만 원 이하가 49.5%, 81만 원 이상이 50.5%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가구 소득은 100만 원 이하가 52%, 101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가 33.1%, 201만 원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도 14.9%로 나왔으며 월 평균 가구 소득의 평균은 144.7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월 평균 저축액을 묻는 질문에는 10만 원 이하 32.6%, 11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61.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51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4.0%, 101만 원 이상 150만 원 이하 1.7%로 나타났으며 10만 원 이하의 응답에는 월 저축액이 아예 없다는 응답도 포함되어 있다. 월 평균 생활비는 100만 원 이하가 61.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생활비가 101만원 이상 든다고 응답한 비율도 38.7%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구의 자산을 1,001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라고 응답한 비율이 37.7%로 가장 높았고 가구의 부채 또한 1,001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라고 응답한 비율이 50.0%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가정경제가 곤란할 시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받을 수 있는 상대의 유무에 대한 질문에는 도움을 요청하거나 받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가 46.4%, 없다가 53.6%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받을 수 있는 상대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자활사업에 참여한 기간은 2년 미만자가 46.1%, 2년 이상자가 50.9%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2.6년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5년 이내 가계의 경제전망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응답한 비율이 40.9% 반면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고 응답한 비율이 59.1%로 조금 더 높았다. 국가가 공인하는 기술자격증 소지에 대한 문항에는 ‘없다’ 의 응답이 57.6%, ‘있다’ 가 42.4%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총 취업경력을 묻는 질문에는 4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1.9%로 높게 나타났다.

월 평균 개인 소득은 평균 90.6만원, 월 평균 가구 소득은 144.7만원, 월 평균 저축액은 26.1만원, 월 평균 생활비는 107.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총 취업 경력은 7.5년으로 조사되었다.

<표 7>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문항		빈도(명)	비율(%)	
개인적 특성	연령	39세 이하	45	14.8
		40세~49세	155	51.0
		50세 이상	104	34.2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 기타(미혼, 이혼, 재혼, 사별 등)	103 200	34.0 66.0
	교육수준	중졸이하	78	25.7
		고졸	174	57.2
		전문대졸 이상	52	17.1
건강상태인식	건강한 편	122	40.4	
	보통	105	34.8	
	건강하지 못한 편	75	24.8	
자녀수	없음	18	19.3	
	1명이하	46	49.5	
	2명이상	29	31.2	
장애/질병 여부	예 아니오	90 202	30.8 69.2	
심리적 자원 변수	자아존중감	상(3.32~5.00) 하(0.43~3.31)	125 179	41.1 58.9
		가족결속력	상(3.38~5.00) 하(1.00~3.37)	142 155
사회적지지 자원 변수	도구적지지		상(3.01~4.80) 하(1.00~3.00)	108 152
		평가적지지	상(3.30~5.00) 하(1.00~3.29)	127 148
	정서적지지		상(3.21~5.00) 하(1.00~3.20)	99 171
경제적 특성 및 취업관련 변수	주택소유 유형	자가	43	14.1
		전세	43	14.1
		기타(월세, 전세+월세, 무료·영구임대 등)	218	71.7
	주택종류	단독주택	129	42.6
		기타(아파트, 다세대,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오피스텔 등)	174	57.4
	거주지 선택이유	경제적 능력에 맞추어서	204	67.3
		사업상 또는 직장 때문에	2	0.7
		생활시설의 편의	10	3.3
		환경이 좋아서	12	4.0
		경제적 가치가 오를 것 같아서	1	0.3
		교육여건 때문에	16	5.3
옛날부터 살아와서		15	5.0	
친구, 가족, 친지와 가까이 살고 싶어서	15	5.0		
기타	28	9.2		
집의 크기	20평 이하	225	75.5	
	21평 이상	73	24.5	
월 평균 임대료	10만원 이하	69	28.4	
	11만원 이상~30만원 이하	96	39.5	
	31만원 이상	78	32.1	
가계 재정에 대한 인식	어려운 편	211	69.4	
	안정된 편	93	30.6	
소득원 (복수응답)	본인	277	78.7	
	본인+배우자	55	15.6	
	본인+부모님	6	1.7	
	본인+기타 소득원	14	4.0	
월 평균소득 (개인)	90만원 이하	171	58.4	
	91만원 이상	122	41.6	

<표 7> 계속

문항		빈도(명)	비율(%)	
경제적 특성 및 취업관련 변수	월 평균소득 (가구)	100만원 이하	140	52.0
		101만원 이상~200만원 이하	89	33.1
		201만원 이상	40	14.9
	월 평균 저축액	10만원 이하	57	32.6
		11만원 이상~50만원 이하	108	61.7
		51만원 이상~100만원 이하	7	4.0
		101만원~150만원 이하	3	1.7
	월 평균 생활비	100만원 이하	171	61.3
		101만원 이상	108	38.7
	가구의 자산	100만원 이하	21	13.0
101만원 이상~500만원 이하		57	35.2	
501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17	10.5	
1,001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		61	37.7	
5,001만원 이상		6	3.7	
가구의 부채	1,000만원 이하	75	44.6	
	1,001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	84	50.0	
	5,001만원 이상	9	5.4	
가정경제 곤란 시 도움상대	없다	149	53.6	
	있다	129	46.4	
자활사업 참여기간	2년 미만	131	46.1	
	2년 이상	153	53.9	
향후 5년 이내 가계 경제전망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편	123	40.9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는 편	178	59.1	
자격증 소지여부	없음	170	57.6	
	있음	125	42.4	
총 취업 경력	3년 이하	107	38.1	
	4년 이상	174	61.9	
연속형 변인		평균	표준편차	
개인적 특성	연령(세)	46.6	7.501	
심리적 자원 변수	자아존중감	3.32	.614	
	가족결속력	3.38	.844	
사회적지지 자원 변수	도구적지지	3.01	.770	
	평가적지지	3.30	.744	
	정서적지지	3.21	.754	
경제적 특성 및 취업관련 변수	집의크기(평)	20.6	24.096	
	입주당시 보증금(만원)	871.8	1,040.091	
	월평균 임대료(만원)	49.1	84.392	
	월평균 개인 소득(만원)	90.6	32.459	
	월 평균 가구 소득(만원)	144.7	115.201	
	월 평균 저축액(만원)	26.1	24.479	
	월 평균 생활비(만원)	107.4	58.251	
	가구의 자산(만원)	1,680.4	2,566.359	
	가구의 부채(만원)	2,657.7	5,564.684	
	자활사업 참여기간(년)	2.6	1.848	
총 취업 경력(년)	7.5	6.518		

결측값으로 인해 합계에 차이가 있음

2. 조사대상자의 자활의지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자의 자활의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결과는 각 항목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자활의지에 대한 인식

구분	평균	표준편차
나는 국가의 보호를 받기보다는 임금이 적어도 일을 해서 스스로 생계비를 해결하겠다.	3.24	.911
자활에 도움이 되면 일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3.28	.843
자활에 필요한 관련기술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2.97	.929
자활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했다.	2.86	.833
자활에 필요한 관련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자금/정보/관계망)	2.78	.890
정부로부터 7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것과 70만원이 주어지는 일자리가 선택적으로 주어지면 나는 일자리를 선택하겠다.	3.09	1.035
나는 언젠가 스스로 자활할 것이다.	3.37	.954
전체	3.08	.914

주) 5점 Likert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조사대상자의 자활의지에 대한 인식의 측정항목 중 4개 항목은 평점(3.0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3개 항목은 자활의지에 대한 인식이 낮게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는 언젠가 스스로 자활할 것이다.’가 3.3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활에 도움이 되면 일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할 것이

다.’ 3.28점, ‘나는 국가의 보호를 받기보다는 임금이 적어도 일을 해서 스스로 생계비를 해결하겠다.’ 3.24점, ‘정부로부터 7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것과 70만원이 주어지는 일자리가 선택적으로 주어지면 나는 일자리를 선택하겠다.’ 3.09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활에 필요한 관련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가 2.7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자활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했다.’ 2.86점, ‘자활에 필요한 관련기술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2.97점으로 조사되었다. 위의 결과로 볼 때 현재 주관적 자활인식에는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자활을 위한 계획 설정과 기술능력습득 등 자활을 위한 구체적 준비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자활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금이나 정보를 제공해주고 필요한 지역 사회자원을 연결해 주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러한 서비스를 마련하여 개인이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3. 조사대상자의 특징에 따른 자활의지의 차이

저소득 여성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활의지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개인관련변수에서는 교육수준과 건강상태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연령, 혼인상태, 장애/질병 여부에 따른 자활의지 수준의 차이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여성의 낮은 교육수준은 결국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노동시장에서 주변적인 직종에 종사하게 되므로 여성 전체에 대한 교육자원에 대한 접근도를 높임으로써 교육을 통한 소득획득능력을 향상시키는 정책과제가 필요하다(너밍, 2006)는 결론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개인의 심리적 자원변수에서는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가족결속력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아존중감은 <표 7>에 제시된 것처럼 평균 3.32점으로 ‘보통이다’ 수준이며 이 평균값은 정기선(2000)의 일반 기혼 여성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취업여성이 평균 2.80점, 전업주부가 평균 2.66점, 실직 후 재취업한 여성이 2.67점, 일반 실업여성이 2.63점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 자원변수에서는 도구적지지, 평가적지지, 정서적지지 변인 모두 자활의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여성들이 가족구성원간의 결속력보다 사회적지지 자원 변인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주변의 가족, 친구 등 다양한 사회적지지 자원으로부터 심리적·물질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김은선, 2005)하므로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잘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이들이 이용 가능한 자원의 개발과 사회적 지지망이 되어 주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 특성 및 취업관련변수에서는 월 평균 생활비, 향후 5년 이내 가계 경제전망, 자격증 소지여부, 총 취업경력에 따라 자활의지 수준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여성의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징과 함께 취업·경제적 변수들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주택소유 유형, 주택 종류, 집의 크기, 월 평균 임대료, 가계 재정에 대한 인

식, 월 평균 개인소득, 월 평균 가구소득, 가정경제 곤란시 도움상대 유무, 자
활사업 참여기간에 따른 자활의지 수준의 차이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저소득여성은 다양하고 복잡한 생활실태에 있으므로 경제적인 면을 지
원하고 개인의 인적자원개발을 돕는 것과 같은 심리적, 정서적,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표 9> 조사대상자의 특징에 따른 자활의지에 대한 차이

구분		빈도 (명)	자활의지		
			평균	D	
개인적 특성	연령	39세 이하	44	3.12	
		40세~49세	155	3.05	
		50세 이상	103	3.13	
	F값			.55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	103	3.13	
		기타(미혼, 이혼, 재혼, 사별 등)	198	3.06	
	T값			.84	
	교육수준	중졸이하	76	3.23	b
		고졸	174	3.07	ab
		전문대졸 이상	52	2.92	a
	F값			3.65*	
	건강상태인식	건강한 편	121	3.22	b
보통		105	3.00	a	
건강하지 않은 편		74	3.01	a	
F값			4.47*		
장애/질병 여부	예	88	3.14		
	아니오	202	3.09		
T값			.67		
개인의 심리 및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상(3.32~5.00)	124	3.32	
		하(0.43~3.31)	178	2.92	
	T값			-5.64***	
	가족결속력	상(3.38~5.00)	140	3.07	
		하(1.00~3.37)	155	3.10	
	T값			.333	
	도구적지지	상(3.01~4.80)	107	3.35	
		하(1.00~3.00)	152	2.87	
	T값			-6.31***	
	평가적지지	상(3.30~5.00)	126	3.34	
하(1.00~3.29)		148	2.88		
T값			-6.12***		
정서적지지	상(3.21~5.00)	99	3.29		
	하(1.00~3.20)	170	2.96		
T값			-4.13***		
경제적 특성 및 취업관련 변수	주택소유 유형	자가	43	3.17	b
		전세	42	2.87	b
		기타(월세, 전세+월세, 무료·영구임대 등)	217	3.11	a
	F값			3.01	

<표 9> 계속

	구분	빈도 (명)	자활의지		
			평균	D	
경제적 특성 및 취업관련 변수	주택종류	단독주택	129	3.07	
		기타(아파트, 다세대,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오피스텔 등)	173	3.09	
	T값			-0.257	
	집의 크기	20평 이하	223	3.06	
		21평 이상	73	3.14	
	T값			-0.84	
	월 평균 임대료	10만원 이하	67	3.15	
		11만원 이상~30만원 이하	96	3.14	
		31만원 이상	78	2.96	
	F값			2.26	
	가계 재정에 대한 인식	어려운 편	209	3.07	
		안정된 편	93	3.12	
	T값			-0.59	
	월 평균 소득 (개인)	90만원 이하	169	1.42	
		91만원 이상	122	1.35	
	T값			1.16	
	월 평균 소득 (가구)	100만원 이하	138	3.06	
		101만원 이상~200만원 이하	89	3.14	
		201만원 이상	40	3.03	
	F값			.60	
	월 평균 생활비	100만원 이하	169	3.21	
		101만원 이상	108	2.88	
	T값			4.35***	
	가정경제 곤란 시 도움상대	없다	149	3.08	
		있다	127	3.07	
	T값			.17	
자활사업 참여기간	2년 미만	130	3.06		
	2년 이상	152	3.13		
T값			-0.92		
향후 5년 이내 가계 경제전망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편	121	3.38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는 편	178	2.89		
T값			6.91***		
자격증 소지여부	없음	169	2.96		
	있음	124	3.19		
T값			-3.22**		
총 취업 경력	3년 이하	106	3.18		
	4년 이상	173	3.01		
T값			2.12*		

결측값으로 인해 합계에 차이가 있음.

주)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5 **p<.01 ***p<.001

4. 저소득여성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저소득여성의 자활의지를 종속변수로 하여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관련 변수, 심리적 자원 변수, 사회적지지 자원 변수, 경제적 특성 및 취업관련 특성 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회귀분석의 결과 F값은 7.147로 유의미 한 값으로 나타났으며, R^2 값은 0.323로, 이 모델의 독립변수들은 저소득여성의 자활의지를 약 32%를 설명하고 있다.

분석결과 저소득여성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개인적 특성 관련 변수에서는 연령, 혼인상태, 건강상태였다. 즉, 연령이 어릴수록, 배우자가 없는 상태일수록, 건강할수록 자활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영미(2002)와 허태현(2005)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심리적 자원변수에서는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자원변수에서는 평가적지지가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의 하위 요인인 평가적지지가 자활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고 한계가 있지만 살 가치가 있고 살 능력이 있으며 성장하고 나아지리라고 믿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하여 불만족하고 자기거부, 자기멸시의 경험이 잦으며 살 능력, 살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Tafarodi와 Swann, 1995)고 한 결과와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정선(2004)은 자활참여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자신감의 회복과 심리적 치유의 기회가 되며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들과 도움을 나누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맺는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적지지가 자활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 선행연구와는 일치되지 않는 결과를 보였으나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자활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필요가 있겠다.

주택소유 유형이 자가나 전세일 때 보다 주택이 없는 즉, 무주택일 때, 월 평균 생활비가 적을수록 자활의지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경제적 변인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이들의 경제적 박탈이 심각한 수준이며,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자활과 자립이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며 저소득여성 대상자 가구의 주거 열악성과 생

활상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도 요구된다.

자활사업 참여기간과 자격증 유무, 총 취업경력은 자활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별한 기술이 없는 저소득여성이 경험한 생활고와 현실의 벽이 높은 것을 실감하였으므로 기대치를 낮추면서 현실을 수용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지지체계를 확보한다고 한 송승숙의(2010) 연구결과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자활사업 참여기간과 자격증 유무, 총 취업경력이 자활의지 영향에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근로기간은 길고 자격증을 갖추지 못했을 때 자활의지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저소득여성의 인적자원개발 방안과 함께 이들을 위한 일자리의 질과 양의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0> 저소득여성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값 독립변수	Parameter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Standard Error
<u>개인적 특성 관련 변수</u>		
연령	-.146(-.206)**	.049
혼인상태(배우자 있음)	.350(.343)***	.075
교육수준	-.063(-.081)	.053
건강상태인식	.080(.142)*	.040
<u>심리적 자원 변수</u>		
자아존중감	.162(.168)*	.066
가족결속력	.056(.059)	.059
<u>사회적지지 자원 변수</u>		
도구적지지	.028(.221)	.017
평가적지지	.048(.359)*	.021
정서적지지	-.024(-.185)	.019
<u>경제적 특성 및 취업관련 변수</u>		
주택소유 유형(기타)		
자가	-.271(-.161)*	.118
전세	-.346(-.258)***	.084
월 평균 생활비	-.167(-.172)*	.070
자활사업 참여기간	.064(.067)	.059
자격증 유무(있음)	.092(.095)	.063
총 취업경력	.097(.098)	.063
상수	.399	
F값	7.147***	
Adj R2	.323	

*p<.05 **p<.01 ***p<.001

V. 결론 및 제언

여성들의 빈곤문제는 세계적인 현상이며, 국가적,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문제이다. 여성들은 사회경제적 구조 속에서 다양한 빈곤 실태와 심화현상을 겪게 된다. 최근 정부에서 여성 빈곤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이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 의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여성 빈곤과 관련된 연구들도 저소득 여성의 취업여부와 형태 등 연구에 초점이 있어서, 여성 자체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빈곤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 자신이 빈곤을 벗어나겠다는 의지, 즉 자활의지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저소득 여성의 자활의지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궁극적으로 저소득 여성의 자활을 도울 수 있는 기초자료를 얻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1년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예비조사, 2011년 9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를 위한 최종 분석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 여성 350명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 통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각 변인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서 Duncan's Multiple Range 검증을 이용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에 대한 검증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징에는 개인적 특징, 개인의 심리적(자아존중감, 가족결속력) 및 사회적지지 자원, 경제적 특성 및 취업관련 특성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 여성들의 자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 여성의 자활

에 대한 인식은 전체적으로 3.08점으로 “보통이다” 수준으로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나는 언젠가 스스로 자활할 것이다.’가 3.37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자활에 필요한 관련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가 2.7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저소득여성들의 자활의지 수준은 평균이하 수준이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도 자활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 저소득 여성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활의지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개인적 특성에서는 교육수준과 건강상태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저소득 여성의 교육수준과 건강상태가 중요한 자원으로 나타났다. 가족결속력에 따라 저소득 여성의 자활의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 자원 변수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지지 자원 변수에서는 3가지 하위영역인 도구적지지, 평가적지지, 정서적지지 모두 자활의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 여성의 자활의지에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특성 및 취업관련변수에서는 월 평균 생활비, 향후 5년 이내 가계 경제전망, 자격증 소지여부, 총 취업경력에 따라 자활의지 수준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저소득 여성의 자활의지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온 중요한 변수들로 나타났다.

셋째, 저소득 여성들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는 여성의 연령, 혼인상태,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및 평가적 지지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경제 및 취업관련 변수들에서는 무주택 소유자인 경우, 월평균 생활비가 저소득 여성들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었다. 이 중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변수는 평가적 지지여서 저소득 여성의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저소득여성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활의지에 대한 인식이 보통의 수준이었다. 또한 저소득여성들은 현

재, 주관적 자활인식에는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자활을 위한 계획설정과 기술 능력습득 등의 노력인식은 낮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정보, 자금, 관계망 등의 활용을 통한 자활의 구체적 계획수립을 위한 도움이나 프로그램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평가적 지지와 함께 배우자유무가 저소득 여성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소득여성들이 서로 어울리며 개개인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평가적 지지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정보제공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업무에 있어서도 개개인에게 책임감을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맡은 일에 대해 동기유발과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이러한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과 긍정적 평가 또한 자활의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자활사업 참여기간, 자격증 소지유무, 총 취업경력과 같은 취업관련 변인들이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는 현행 자활지원 프로그램들의 한계를 보여준다. 여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간제근로로부터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시간제근로자도 전일제근로자와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분위기를 유도하고 점차 확산하기 위해 민간에 비해 경쟁이 심하지 않은 공공부문에서의 시간제근로의 활용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기간이나 자격증 유무에 따라 자활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등 개인의 능력별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하여 현행 프로그램의 취약부분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겠다.

넷째, 일과 자녀양육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함께 생계유지로 당장 소득이 필요해 직업을 선택했던 저소득여성의 구직활동과 여성의 역할 모델(role model)을 정립시키는 것과 같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저소득여성의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차별화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여성은 다양하고 복잡한 생활실태에 있으므로 개인의 인적자원개발을 돕는 것과 같은 심리적, 정서적, 제도적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사회적 차원에서의 정책과 제도가 요구된다.

앞으로, 저소득여성을 대상으로 한 심층적 사례연구와 함께 저소득 남성 및 제주지역 이외의 지역 여성과의 비교 연구 등이 이루어진다면 저소득 여성의 생활실태 및 자활의지를 위한 보다 유용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경숙(2010) 제주지역 저소득여성의 빈곤실태 및 자활전망 토론회 자료집.
- 강남식·김수현·백선희(2002) 여성자활 활성화를 위한 자활근로사업 개발,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실
- 강남식·신은주·성정현(2002) 여성 조건부 수급자들의 실태와 자활의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 19호.
- 강철희(1997) 자활보호가구의 자활보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와 탈피율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생존표 분석을 이용한 접근. 한국사회복지학 제31호. 한국사회복지학회.
- 김교성·강철희(2003) 취업대상 조건부 수급자의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 김동화(2006) 화상으로 인한 안면장애인의 사회적 지지가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곤·여유진·김태완·손창균·최현수·이선우·김계연·송치호·오지현·이서현·신재동(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수현(2001) 서울시 저소득 여성가구주를 위한 자활지원 방안 : 성동구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아래미(2006) 빈곤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가구유형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안나(2006) 한국사회 여성빈곤화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 제 26권.
- 김영란(1997)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 통권31호.
- 김영미(2002) 자활지원사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여성참여자를 대상으로,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윤경(200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선(2005) “빈곤여성가구주의 심리·사회적 요인이 자활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성·손병돈(2002)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
- 금재호(2011) 외환위기 이후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너밍(2006)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탈출 결정요인.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대명(2002)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와 전망. 동향과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대명(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급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정순(2004) “여성주의 시각에서 빈곤개념의 재정립을 읽고”. 여성빈곤극복을 위한 대안모색 토론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 문진곤(2004)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자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묘숙(2006) 여성자활 참여자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남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숙(2001) 저소득 모자가정 빈곤실태와 자활대책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회의 자료집, 67-93
- 박능후·김수현·김미곤(2002) 한국의 기초보장 자활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기초보장 자활정책평가센터 개설기념 심포지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영란·정진주·황정임·권문일·김창엽·석재은·엄규숙·유태균·정인숙·황수경(2003) “여성빈곤 퇴치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박영란·강철희(1999) 저소득 모자가정 가구주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 91-116.
- 배재숙(2002)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연구, 송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백선희(2000) 성주류화의 관점에서 본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분석과 자활사업

- 정착을 위한 정책 제안, 한국사회복지학, 43(11), 77~105.
- 변규란·이정은·최수찬(2007) 모자보호시설 가구주의 심리사회적 요인이 자립 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1(12), 139-166.
- 석재은·김용하·김태완(2003) “여성의 빈곤실태 분석과 탈빈곤 정책과제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명재(2009) 소득분배 동향 고찰, 한국조세연구원.
- 성정현, 송다영(2005) “여성가족통계연보, 2005(제1호)”, 여성가족부.
- 송경아(2007) 자활사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참여 여성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승숙(2010) 근거이론을 통한 빈곤 여성 가장의 자활의지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은주(2001) 여성 조건부 수급자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만족실태. 사회과학연구 제5집. 카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심은희(2002) 빈곤여성가장의 심리적 특성이 자활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중순(2001)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경제적 자활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유진·김미곤·김태완·양시현·최현수(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 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김태완·김수정·송치호(2010)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후 대책방안:젠더적 관점의 Human New Deal 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지영(2003) 여성 가구주와 남성 가구주의 빈곤 차이에 관한 연구: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옥정순(2004) 자활사업 참여 여성을 위한 지원방향.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정원(2000) 한국여성빈곤의 특성에 관한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태균·김경휘(2003) 자활사업참여가구 중 근로가구와 비근로가구의 특성에 관한 탐색적고찰.사회복지연구.22.
- 이병하(2003) 자활후견기관 프로그램 참여자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송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수(2003)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취업요인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장원·김정우·문상석·민병삼·이원익(1998) 실업과 빈곤화, 한국노동연구원.
- 이재은(2009) 사회적지지가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구주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선(2004) 자활사업 효과성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 여성참여자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아(2009) 여성가구주 가구의 향상빈곤화: 추세와 요인, 여성연구. 77(2), 49~79.
- 이태진(2003) 근로빈곤계층의 빈곤요인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미(2005) 도시지역 빈곤의 여성화에 관한 연구 : 여성가구주의 빈곤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최은영(1998) "빈곤의 여성화 :한국 여성 빈곤의 원인과 결과".UNDP한국대표부편, 「빈곤퇴치 ;한국의 경험과 교훈」.서울 :UNDP한국대표부.
- 정기선(2000) 경제 위기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제 34집
- 정미숙(2007) 저소득 여성 가구주의 가족경험과 빈곤화 과정에 대한 연구-사회적 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영태(2006) 빈곤의 여성화 : 제주지역 여성의 빈곤. 제주발전연구. : 통권 제 10호, 275-293.
- 정영태·정진주(2011)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수립.연구보고서.제주발전연구원.
- 통계청(2009) 2009년 통계로 보는 제주 여성의 삶, 호남지방통계청, www.kostat.go.kr/hnro
- 허근(2006) 여성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태현(2005)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dair, Vivyan C. 2005. "Class Absences: Cutting Class in Feminist Studies",
Feminist Studies, 31, no. 3 (Fall).

Adams, J. S. 1965. "Inequity in Social Exchange",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
London: Academic Press.

Amy Lynn. 2001. Situational and psychological predictors of successful
transitions from welfare to work. *University of Minnesota*.

Arnold, J. & Cooper, Cary L. 1991. *Work Psychology Understanding Human Behavior
in the Workplace*, Pitman.

Bane, M. J. and Ellwood, D. 1986. "Slipping Into and Out of Poverty: The
Dynamics of Spell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

Barrett, M. and M. McIntosh. 1980. The 'Family Wage': Some Problems for
Socialists and Feminists. *Capital and Class* 11, 51-72

Bhalla, A.S and Lapeyre, F. 1999. Poverty and Exclusion in a Global World.
macmillanpress.

Brooks, MG, & Buckner, JC. 1996. Work and welfare: Job histories, barriers
to employment, and predictors of work among low-income single
mother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6, 526-537.

Burniaux, J. M., T. T. Dang, M. Forster, M. M. D' Ercde, and H. Oxley.
1998.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Selected OECD
Countri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189.

Butler, A. C. 1996. "The Effect of Welfare Benefit Levels on Poverty
Among Single-Parent Families". *Social Problems*, 43(1),
94-115.

- Buvinic, M, and Gupta, G.R 1997. "Female-Headed Households and Female-maintained Families : are they worth targeting to reduce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45(2), 259-280.
- Cancian, M, Haveman, R, Meyer, D, R, & Wolfe, B. 2000. work after Welfare. Women's Work Effort. Occupation and Economic Well-being. *Social Work Research*. 24(2).
- Danziger, Sandra et. al. 1999. Barriers to the employment of welfare recipients, (IRP Discussion Paper 1193-99), Madison, WI: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 Evans,S. 2005. "Beyond gender:Class,poverity and domesticviolence". *Australian Social Work*. 58(1).
- Galbraith, J.K 1962. *The Affluent Society*. Harmondsworth. Penguin Book Ltd.
- Harris. K. M. 1993. Work and welfare among Single Mother in Pover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9, 248-251.
- Huseman, R.C., Hatfield, J. D. & Miles, E. W. 1987. "A New Perspective on Equity Theory : The Equity Swnsitivity Construc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2.
- Kniesner, T. J., M. B. McElroy, and S. P. Wilcox. 1988. Getting into Poverty Without a Husband, and Getting Out, With or Withou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8(2), 86-60.
- Leathy, P. J., Buss, T. F. & Quane, J. M. 1995. "Time on Welfare: Why Do People Enter and Leave the System?". *American Journal of Economic and Sociology*, 54(1), 33-46.
- Muller, E. 1983. "Measurement of Women's Work and Welfare", Buvinic Mayra(ed.), *Poverty in the Third World*, 272-275.
- O'Neill, J. A., Bassi, L. J., & Wolf, D. A. 1987. The duration of welfare spell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9. 241-248.

- Pearce, D.(1978). The Feminization of Poverty: Women, Work and Welfare. *Urban and Social Change Review*, 11(Feb).28-36.
- Petersen, C. D. 1995. "Female-headed families on AFDC: Who leaves welfare quickly and who doesn't". *Journal of Economic Issues*, 29(2).
- Room, G., 1995.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the new European agenda for policy and research". in Room ed. Beyond the threshold.-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The Policy Press.
- Ruth Sidel. 1992. Women and Children LAST. Penguin.
- Sarvasy, W. and Allen, J.V. 1984. "Fighting the Feminization of Poverty : Socialist-Feminist Analysis and Strategy",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16(4), 89-110.
- Saunders Peter(1998) "Defining Poverty and Identifying the Poor: Reflections on the Australian Experience." *SPRC Discussion Paper.No.84*
- Sen, A.1999. Development as Freedom. New York, Anchor Books.
- S. E. Zimbalist(1977) Historic Themes and Landmarks in Social Welfare Research. New York: Harper K. Row
- Tafarodi, R. W., Swann, W. B. Jr.(1995) Self-liking and self competence as dimension of global self-esteem; initial validation of a meas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5(2), 322-342.

뉴스제주(2009. 4. 14), 道, '저소득층 자활 성공률' 전국 1위 기염!

조선일보(2010. 5. 24), [빈곤 늪에 빠진 150만 '한부모 가정'] [上] 78%가 月收 150만원이하... 병원 못가고 참는 '싱글맘'.

제주의소리(2010. 9. 6), 제주도, 복지부 실시 '2009 지자체 자활사업' 우수 기관 선정

<Abstract>

**Study about factors of lower income group women's
self support will**

Kim, Bu-kang

Major in hom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Academic advisor Kim, Hye-yun

This study is about lower income group women's self support will aiming for analysing variables that affect self support will through looking into differences of self support will of their trait. Th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can be used for improving lower income group women's self support will effectively in the future as a basic data.

To accomplish this study's purpose, the survey was conducted of attending self improving business lower income women, 350 people, that are in the basic living security beneficiaries and the second highest class, and final object of study's number is 304. Dependent variable in this research is self support will of lower income

* This thesis submitted to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2013.

women and independent variables are personal trait, mental resources of individual and social supports, economy and employment.

To find out lower income women's differences of self support will in accordance with main variables, t-test and ANOVA analysis was conducted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was conducted as a posteriori test. Also, as a test for effect of self support will by main factors was conduct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ain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written below.

Firstly, conclusion of analysis about awareness of lower income women's will is generally 3.08, 'normal' level. Specifically, 'I will accomplish self support some day' gets the highest score as 3.37, and 'Foundation of needs that are required to accomplish self support was constructed.' gets the lowest score as 2.78.

Secondly, conclusion of analysis about self will differences in accordance with lower income women's general traits shows significant differences only in education level and physical condition which belongs to individual trait, and only self-worth has significant differences under variables of mental resources and all three lower variables, instrumental support, estimative support and emotional support, show the significant differences. Variables of economical trait and employmen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of self support will level under average living expenses per month, family economic outlook for 5 years from now, certificates and working experiences.

Thirdly, as factors of affecting self support will of lower income

women, their ages, marriage, health condition, self-worth, estimative support, type of house own and average life expenses affects to them and marriage and estimative support are main variables that affect lower income women's self support will.

Throughout this study research shows that lower income women's self support will is normal level that are attend self support business in Je-ju area. Also it shows that rather than variables of individual mental resources and social support resources, with general individual trait, variable of economy and employment have more close and significant relationship. Therefore, for improving self support will of lower income women, individual trait, employment and economic variables should be mainly used. Supporting should follow individual circumstances with specific plans and realistic accomplishments that help them improve their self support will.

Along with this, lower income woweden have diverse and complex circumstances, so policies and systems are needed for support mental, emotional and instrumental aid, such as helping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the individual level.

<부록> 설문지

저소득 여성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가정교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저소득 여성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앞으로 적절한 서비스 지원방안 마련에 있어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시는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므로 절대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며 전적으로 연구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지에 응답하시는 데에는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기초자료로 소중히 활용될 설문이므로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답해 주신 것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2011. 7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지도교수 : 김혜연

연구자 : 김부장

*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8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I. 일반적 특성

1. 귀하의 연령은? _____ 세
2. 귀하의 현재 혼인 상태는 무엇입니까?
① 미혼 ② 동거 ③ 배우자 있음 ④ 이혼 ⑤ 사별 ⑥ 별거
⑦ 배우자 가출/행방불명 ⑧ 기타()
3.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중퇴포함)
③ 중학교 졸업(중퇴 포함) ④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⑤ 전문대 졸업(중퇴 포함) ⑥ 대학교 졸업 이상(중퇴 포함)
4. 귀하의 자녀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괄호안에 연령을 기재해 주시고 부족할 시 보기 아래의 여백에 계속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없다 ② 1명(세) ③ 2명 이상(세, 세, 세, 세, 세)
5. 귀하의 종교는?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종교 없음 ⑤ 기타()

II. 거주 형태

1. 귀하의 주택유형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자 가 ② 전 세 ③ 월 세 ④ 기 타
2. 귀하의 주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단독주택(일반 단독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영업겸용 단독주택)
②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주거전용 아파트)
③ 연립주택/다세대 주택
④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내 주택
⑤ 오피스텔
⑥ 기타()

3. 귀하가 지금의 거주지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 능력에 맞추어서
- ② 사업상 또는 직장 때문에
- ③ 생활시설의 편이(할인점, 문화센터 등)
- ④ 환경이 좋아서(공원, 공기가 맑아서 등)
- ⑤ 경제적 가치가 오를 것 같아서
- ⑥ 교육여건 때문에
- ⑦ 옛날부터 살아와서
- ⑧ 친구, 가족, 친지와 가까이 살고 싶어서
- ⑨ 기타()

Ⅲ. 거주관련 특성

- 1. 귀하는 현재 거주지에 거주한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년 개월)
- 2. 귀하가 거주하는 집의 크기는 대략 몇 평 정도의 크기입니까? 대략 ()평
- 3. 귀하의 현재 거주지의 입주 당시 보증금은 대략 얼마나 되십니까? 대략()만원
- 4. 귀하의 현재 거주지의 월 평균 임대료(월세 포함)는 대략 얼마나 되십니까? 대략()만원

Ⅳ. 근로능력

- 1.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는 어떠한 편입니까?
 - ① 매우 건강한 편이다. ② 대체로 건강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 ⑤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 2. 귀하는 현재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 ① 예(어떤 질환이나 장애입니까?_____)
 - ② 아니오

3. 귀하는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까?(국가공인)

- ① 없음 ② 있음

4. 귀하의 총 취업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현재까지 _____년 _____개월)

V. 소득상황 및 경제활동

1. 귀하는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어려운편 ② 다소 어려운 편 ③ 보통
④ 다소 안정된 편 ⑤ 매우 안정된 편

2. 귀하의 소득원은 어떻게 되십니까?(복수응답가능)

-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형제 ④ 부모님 ⑤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

3.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개인월평균소득()만원

4. 귀하 가족(부모 및 형제 포함)의 전체 월 평균 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 되십니까?

→ 가족 전체 월 평균 소득()만원

5. 귀하의 월 평균 저축액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대략()만원

6. 평소 귀하의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드십니까?

월 평균 _____만원 * 식비·보육비·교육비·의료비·교통비·주거비 등 포함

7. 귀 가구의 자산(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전·월세 보증금과 동산·부동산을 모두 합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모든 가구원의 자산을 합산해 주십시오.

대략()원

8. 귀 가구의 부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모든 가구원의 부채를 합산해 주십시오.

대략()원

9. 다음 항목 중 지출이 가장 큰 순서대로 두 개를 선택해 주세요.

(① ②)

① 생계비 ② 주거비 ③ 교육비 ④ 식 비 ⑤ 의료비 ⑥ 기타_____

10. 귀하의 가정 경제가 어려울 경우 도움이 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부모 ③ 자녀 ④ 형제·자매 ⑤ 직장동료 ⑥ 선·후배

⑦ 종교단체 및 복지단체 ⑧ 금융기관 ⑨ 기타기관

11.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참여기간은 얼마입니까? _____년_____개월

12.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전과 지금을 비교할 때 귀하의 경제적 부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3. 귀하는 향후 5년 이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① 매우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② 조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③ 그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④ 더 나빠질 것으로 생각한다

⑤ 매우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VI. 사회적 지지

1. 다음 문항들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문항	친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그들은 내가 돈이 필요로 할 때는 기꺼이 마련해준다.					
2. 그들은 언제나 나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들어준다.					
3. 그들은 내가 한 행동에 대해 바른지, 틀린지를 공정하게 말해준다.					
4. 그들은 자신이 직접 도움을 줄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를 도와준다.					
5. 그들은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6. 그들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르쳐준다.					
7. 그들은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함께 의논해 준다.					
8.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항상 최선을 다해 나를 도와준다.					
9.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해준다.					
10. 그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충고를 해준다.					
11. 그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의 일을 인정해준다.					
12. 그들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 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준다.					
13. 그들은 내가 아플 때 일을 대신해준다.					
14. 그들은 나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언제나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15. 그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 때 내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해준다.					

Ⅷ. 가족지지척도(가족결속력)

1. 다음은 가족지지척도에 관한 질문지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해 주는 지'에 대하여 답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나를 존중해주고 염려해준다.					
2. 우리 가족은 내 생각이나 감정을 잘 이해해 주고 받아준다.					
3. 우리 가족은 가족 외의 다른 사람보다 우리 가족끼리 더 가깝다.					
4. 우리 가족은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좋아한다.					

Ⅷ. 자아존중감

1. 다음은 자아존중감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같거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곳에 **O**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 자신을 좋게 생각한다.					
2. 나도 다른 사람만큼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3. 나는 대체적으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4. 나는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5. 나는 남들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6. 나의 삶은 크게 쓸모 있는 것은 아니다.					
7. 나는 대체로 봐서 실패자라고 느낀다.					

IX. 자활의지

1. 다음은 귀하의 자활의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대답을 골라 **○**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국가의 보호를 받기보다는 임금이 적어도 일을 해서 스스로 생계비를 해결하겠다.					
2. 자활에 도움이 되면 일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3. 자활에 필요한 관련기술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4. 자활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했다.					
5. 자활에 필요한 관련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자금/정보/관계망)					
6. 정부로부터 7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것과 70만원이 주어지는 일자리가 선택적으로 주어지면 나는 일자리를 선택하겠다.					
7. 나는 언젠가 스스로 자활할 것이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